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10호 2016년 3월 2일(수)/계간

발행인 · 안병환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실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2 · 3면 입학 축사
안병환 총장, 임각수 군수, 총학생회장

4면 Campus News
학위수여식 개최학사 390명, 석사 5명 배출
무안국제공항에 비행교육원 개원!

5면 Campus News
총장동정 | Photo News

6면 Campus News
中 북경연합대내 중국 캠퍼스 설립 협약
발전기부금내역

7면 Campus News
2년 연속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 쾌거
'2016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선정
충북지역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

8면 Students News
졸업과 새로운 시작 걱정말아요 그대

9면 Students News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총학생회 GIANT

10면 Students News
그대들이 생각하는 학교는 어떤가요?

11면 Students News
김현수, 카누슬라럼 국가대표팀 지도자 발탁
2016 글로벌 리더십 영어 캠프 성료

12 · 13면 JWU in 人
'교육'을 통한 참된 '인재양성'이지요

14면 JWU in 人
윤대일 학생 |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라

15면 JWU in life
학교에 무슨 일이? 학교의 스마트한 변화

16면 Global JWU
세 마리 토끼를 다 휘어잡는 법!

17면 Global JWU
교환학생 후기

18면 Freshman special
중원대 400% 활용법
대학가면 예뻐진대

19면 Freshman special
대학의 첫걸음 수강신청 부터!

20면 Freshman special
설렘의 시작! 친구와 룸메이트?

21면 Freshman special
내방의 품격 – 우리집에서

22면 Career
자격증 탐구 보고서

23면 Career
자기소개서 & 면접 A to Z

24면 Culture
국내여행, 어디까지 가봤니?

25면 Culture
서울 골목길 여행

26면 Culture
블랙프라이데이? 나도 한번 해보자 해외직구!

27면 Culture
카페 메뉴판 앞에서의 뻘쭘함은 이제 그만!

28면 Culture
괴산맛집 지도

제10호 2016년 3월 2일 수요일

JUNGWON UNIVERSITY
START SCHOOL





총 장 안 병 환

안녕하십니까? 중원대학교 총장 안병환입니다.

한 겨울 추위도 이제는 꽃샘추위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원대학교에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먼저, 오늘의 영광스러운 입학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중원대학교를 방문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간 자녀의 학업을 위해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며 훌륭한 젊은이로 키워주신 학부모님 여러분께도 중원대학교 모든 구성원을 대신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중원대학교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과 종단 후원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 중원대학교는 2009년 개교 이래 '성실', '경건', '신념' 이라는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대학민국 최고를 넘어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편제정원 5천 명 규모의 중견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빠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과 더 많은 투자로 우리 중원대학교가 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 '의료·보건', '신성장동력산업'의 3대 특성화분야는 물론 기초학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그 성과를 점점 더 높여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개소한 비행교육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해 주었고, 이는 미래사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등 세계적인 대학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원대학교는 신입생 여러분과 재학생 모두가 더 큰 꿈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중원대학교 학생으로서 4년간의 대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곳 중원대학교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다양한 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삶의 지혜를 터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삶이 가치 있고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여러분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여러분들의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살펴보고 대학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중원대학교 신입생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나'보다는 '우리'를 위해 노력하는 리더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부하게 될 전공분야에서 나만을 위함이 아닌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지 연구하고 토론하십시오. 이러한 훈련은 앞으로 훌륭한 리더의 기본 자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말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십시오! 인생은 도전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여러분들의 젊음과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십시오. 훌륭한 교육과 올바른 인성은 우리 대학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자신의 전공분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도 최고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십시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회는 스스로 잘 준비된 자에게 더 많이 돌아갈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투자는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놓을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말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재능과 역량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과 중원대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세계적인 명품/명문대학으로 발돋움 하는 우리 중원대학교의 모습도 함께 응원해주시기 바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앞으로 4년 후에는 더 발전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훌륭한 학생들을 우리 중원대학교에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선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께도 힘찬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중원대학교 신입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3. 2.

중원대학교 총 장 안병환

대학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며 성장하는 곳입니다.



괴산군수 **임 각 수**

친애하는 중원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사랑과 정성으로 자녀를 길러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대학생으로 새로운 세상에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고 행동한 것의 책임 역시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며 성장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질 대학생활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와는 다를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실현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가는 공부를 해야할 것입니다. 대학은 주어진 정답만을 학습하는 곳도 아니고,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는 곳도 아닙니다.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스스로 해답을 탐구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진정한 대학 공부일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글로벌 인재양성의 요람 중원대학교는 명덕산, 박달산, 도덕산, 성불산 등 유불선을 상징하는 명산으로 둘러쌓인 명당으로 전해지는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개교 역사는 7년에 불과하지만 충북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를 달성하는 등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원대학교 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으시기 바라며 괴산군도 중원대학교가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앞으로 4년간 여러분은 이곳 괴산에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곳 괴산은 발상의 전환으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곳입니다. 산막이옛길, 괴산염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유색 볍씨를 활용한 논그림,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괴산에 살며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결과를 지켜보고 배우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학생활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학생회장 **김 광 표**
(신재생에너지학과 / 4학년)

안녕하십니까! 중원대학교 제5대 총학생회 'GI-ANT' 회장 김광표입니다. 희망찬 봄이 시작되는 계절에 '글로벌 리더양성' 중원대학교 입학생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대학생이 되었다는 벅찬 감격과 설렘, 그리고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수많은 난관과 시련의 장애물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그것들을 넘기 보다는 바로 여러분의 동기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면 혼자 도달하는 것보다 더 값지고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동기들을 독려하고 다독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대학생활이 되 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

저도 신입생시절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4학년이 된 현재 돌아보니 두려움과 걱정으로 대학생활을 보내기엔 4년이란 시간은 너무 짧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만약 다시 신입생으로 돌아 갈 수 있다면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그 불안감이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도록 명확한 뜻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미지의 탐험가처럼 두려움 없이 도전에 맞설 것입니다. 미래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대학생활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이에 있어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도록 제5대 총학생회 'GI-ANT'는 학생들의 모든 의견에 귀 기울여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대학생의 자유를 맘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학위수여식 개최-학사 390명, 석사 5명 배출






▶1. 안병환 총장이 졸업생들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다. 2. 2016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고 있다. 3. 2016 전기 학위 수여식에서 학사모를 쓰게된 만학도 3인방. 생약자원개발학과, 김명학, 이용우, 오창근씨.

우리대학이 2월 19일 오전 11시 대학 대강당에서 안병환 총장을 비롯해 대진교육재단 임원진과 임각수 괴산군수, 오승진 괴산경찰서장, 학생과 학부모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을 통해 학사 390명, 석사 5명 등 모두 395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전체 수석 졸업생의 영광은 진아람(사회복지학과 4년) 학생이 대진교육재단 이사장을 수여받았다. 총장상은 각 단과대학별 수석 학생에게 수여되며 대상자는 정은영(사회복지학과 4), 정진형(컴퓨터시스템공학과 4), 손소빈(보건행정학과 4), 김경민(첨단소재공학과 4), 양지해(산업디자인학과 4), 장민수(골프과학과) 학생이 받게 되었다.

한편, 이번 졸업식에는 만학도인 이용우(66)·김명학(60)·오창근(57)씨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 3인은 2013년 3월 중원대 생약자원개발학과 3학년으로 편입학해 처음으로 만난 사이로, 맏형인 이용우씨는 당진에서 괴산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장 먼저 강의실에 도착해 강의를 준비해 자식 같은 동급생과 후배들에게 모범학생으로 유명하다.

김명학씨도 거주지는 안산. 아직 운전을 하지 못해 3학년 때는 기숙사에서 거주했으며, 강의 시간이 여유가 있던 4학년 때는 안산에서 음성, 괴산으로 새벽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 등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학구열을 불태웠다.

오창근씨는 괴산출신으로 30여 년 전 청주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약용식물과 한약재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지인의 추천으로 중원대를 편입학했다. 〈편집부〉

무안국제공항에 비행교육원 개원!





▶1. 안병환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비행교육원 개소식을 환영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 안병환 총장이 이호일 학장(항공대학장)의 안내를 받으며 중원대 비행교육원을 둘러보고 있다.

우리대학이 2월 16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비행교육원 개원식을 가졌다. 이번 개원식에는 안병환 총장을 비롯해 이호일 비행교육원장, 주요 보직자, 직원, 항공대학 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비행교육원은 항공우주분야를 3대 특성화의 일환으로 3년전 부터 추진해 왔으며 항공 분야의 인재 양성에 필요한 비행이론과 실기교육을 실시하는 항공운항 실습기관으로 항공운항학과 재학생들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군, 민항공 조종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비행교육원은 무안국제공항 내에 자리하고 비행교육팀, 정비팀, 교육운영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비행교관, 정비사 등이 근무하며 항공운항실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장비는 '세계 3대 경비행기 브랜드인 세스나 항공기'의 훈련기 3대와 비행시뮬레이터 2대 확보한 상태다.

이로써 중원대학교 비행교육원 교육생들은 시뮬레이터 교육과 250시간의 비행교육을 통해 완벽한 기초 실습과 어느 대학보다도 많은 비행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다.

향후 비행교육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항공기 추가확보와 관련 교육인원 충원할 계획이며 특히 2020년 내에 중원대학교 출신 비행교관을 활용한 후배조종사 양성도 계획 중이다.

현재 항공 산업의 성장에 따른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조종사 수급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종인력은 향후 5년간 국내에만 약 2,000명의 부족이 예상되며, 현재도 700여 명 수준의 부족인원을 외국인으로 대체 활용 중이다.

세계적으로도 향후 20년간 15만 명의 부족이 예상되고 국내의 경우 양성기반이 취약하여 많은 인력이 미국·호주 등 외국의 교육훈련 시스템에 의지하는 형편이며 소규모의 항공 교육기관으로 운영 되고 있다.

손기현(항공운항학과 2년) 학생은 "그동안 비행을 위한 이론적인 교육과 시뮬레이터를 통한 훈련을 받아왔는데 비행교육원이 생기면서 직접 항공기를 타고 비행훈련을 받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최고의 교관님과 장비, 시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는 조종사가 되겠다"각오를 밝혔다.

이호일 비행교육원장은 "이번 비행교육원 개소는 항공우주분야의 발전을 위한 국가시책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외국 항공교육훈련 시스템에 뒤지지 않은 교육으로 최고의 항공조종사를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편집부〉

총장동정

PHOTO NEWS



◀ 중국 흑룡강성 양 뤠이 상무위원(부성상) 예방_9월 18일 중원대학교를 방문한 중국 흑룡강성 양 뤠이 상무위원(부성상)의 예방을 받고 양기관의 국제 교류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 박제국 충북 행정부지사 방문 _ 9월 23일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 엑스포 학술행사인 한국작물학회 학술대외 참가차 본교를 찾은 박제국 충북 행정부지사와 만나 환담을 가졌다.



▲ 충북지방병무청 파트너십 체결_충북지방병무청(청장 정주성)과 10월 13일 병무행정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지난 12월 25일부터 28일 까지 중국 절강월수외국어대학교(중국 절강성 소흥시 소재)와 공동으로 '2015 중원 · 월수 한국학 국제포럼 및 제 9차 한글문화 큰잔치 행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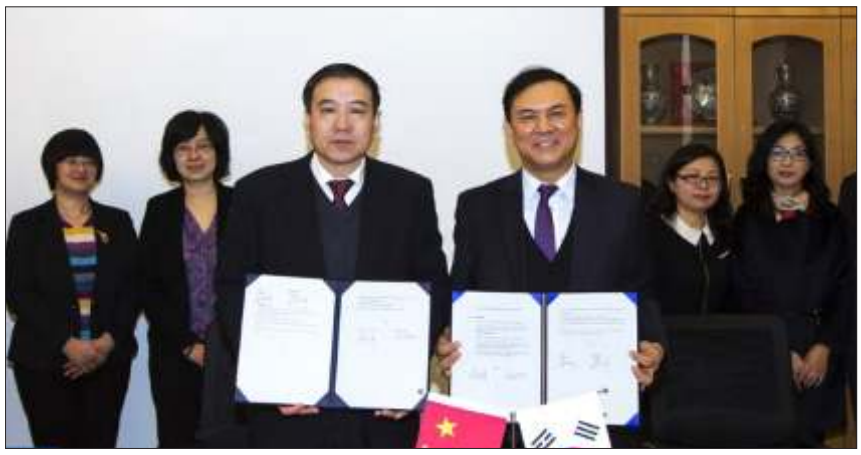
▲ 충북지역 국회의원 첫 간담회 참석_안병환 총장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충북지역 대학총장협희외 주관으로 열린 충북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첫 간담회에 참석했다.(위 쪽 줄 왼쪽 맨끝)





▲ 중국 연변대학교 간호대학원 최향숙 원장 일행 방문_ 지난 11월 4일 중국 연변대학교와 간호학 관련 학술, 학생교류 등 구체적인 교류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북경연합대 內 중원대 북경캠퍼스 설립협약



▶안병환총장과 루젠총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교가 지난 1월 21일 중국 북경연합대학교와 중국 캠퍼스 설립과 석·박사 인재양성 프로그램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병환 총장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북경연합대학 루젠양(卢振洋) 총장의 초청으로 북경연합대학교를 방문해 직접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교의 국제화 발전 계획에 따라 중국 북경연합대학교 내 중원대학교 북경캠퍼스 설립과 교육행정학 석·박사 과정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중원대학교 북경 캠퍼스는 올해 9월 설립예정으로 매학기 중원대학교 재학생 50명 이내(1년100명 이내)을 선발해 북경캠퍼스에서 학습하게 된다.

본교는 북경 내 북경캠퍼스에 중국어, 중국문화 등의 교양수업 과정을 개설하고, 기업탐방 및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사,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북경연합대학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원대는 매년 북경연합대학교의 석사과정 학생을 추천받아 중원대학교에서 교육행정학 석·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북경연합대학은 중국의 수도인 북경시 중점대학으로 북경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으로 1958년 설립된 종합대학으로 총 14개의 캠퍼스가 베이징시내 6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해외 30개 국가, 121개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재학생은 총 3만 명이며 유학생 1,500명, 성인학습자 4,000명이 수학하고 있으며 전임교수는 약 1,600명이고 약 18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편집부〉



2015년 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부유형	번호	성 명	소 속	기부금액	기부내역
발전기금	1	남상성	자원순환환경공학 교수	5,000,000	
	2	오석창	교무팀 팀장	2,000,000	
	3	오준균	코인세탁기	1,400,000	
	4	송재두	국제통상학 교수	1,200,000	연구기금1년약정(12회납)
	5	이성규	골프학과 졸업생	1,000,000	
	6	유태식	재무회계팀 팀장	300,000	1년 약정(3회납)
	7	정종찬	학생역량개발처 주임	250,000	무약정 5회납
	8	조성훈	총무팀 팀장	100,000	
소 계				11,150,000	
장학기금	1	김기형	실버타운 고객	10,000,000	
	2	김종성	평.교 CEO과정 수강생	1,000,000	
	3	김형탁	평.교 CEO과정 수강생	1,000,000	
	4	김정애	간호학과 졸업학생 대표	1,000,000	
소 계				13,000,000	

기부유형	번호	성 명	소 속	기부금액	기부내역
발전기금	1	한국세라믹기술원	항공재료공학교수 (이재원,이시춘, 최용호,한태희)	256,803,000	자산기증에기여
	2	박승권	건일사 대표	11,000,000	그린장비
	3	강동순	엔터정보기술 대표	3,300,000	웹방화벽 로그서버
현물기부	1	(주)세진바이오텍		2,527,950	테블릿 pc
	1	래어달메디컬코리아(유)		1,320,000	테블릿 pc
		백종경	대일사무기	140,000	선풍기외
소 계				275,090,950	
합 계				299,240,950	

※문의처 : 전화 (043)830-8056(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관리팀 / 팩스 (043)830-8115)

2년 연속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 쾌거

제56회 간호사 국가시험 25명 전원 합격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모습.

우리대학 간호학과가 2월 16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표한 제 56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발표에서 2년 연속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간호학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전원 합격함으로써 신생 간호학과라는 꼬리표를 떼고 당당히 정상 반열에 올랐다.

학과 신설 후 4년 간 간호학과 전용 고시실 운영은 물론 기숙형 대학의 장점을 살려 24시간 사제동행 프로그램인 CMP제도를 통해 간호학과 학생들의 시험을 꾸준히 지원한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영어를 기반으로 2개 국어 이상을 구사할 수 있는 차세대 글로벌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과 최첨단 시뮬레이션 실습실과 쾌적한 학습 공간, 학생과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 맞춘 미래설계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2년 연속 100% 합격의 쾌거를 거둔 김혜경 학과장은 "간호학과 전 교수와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기숙형 대학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국가고시를 앞둔 3개월 전부터 대학이 제공한 고시반에서 합숙한 것이 합격의 비결"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편집부〉

'2016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선정



▶의료공학과 학생들이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개발한 기술을 분석하고 있다.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의 융·복합기술 과제발굴·기획·R&D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16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중원대학교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과의 융합R&D기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원대 이공 계열 교수들로 편성된 전담인력과 경영지도와 경영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법학 및 경영계열 교수들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유기농식품 재배기술, 유기가공식품 기술개발에 필요한 바이오, 기계·IT 기술과 관련한 융합기술들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또한 융·복합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멘토가 되어 개발전략 등 R&D 과제 기획을 전방위로 도와주게 된다.

이번 센터 선정으로 중원대는 지역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융·복합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기봉 중원대 산학협력단장은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는 충북지역의 유기농 사업은 물론 각종 R&D 역량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선정 소감을 말했다.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설립한 기관으로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현장기획과제 발굴·기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편집부〉

충북지역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



대학명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1 중원대	192	120	62.5%
2. 영동대	630	391	62.0%
3. 극동대	907	481	53.0%
4. 세명대	1677	884	52.7%
5. 꽃동네대	114	60	52.6%
6. 한국교통대	1213	620	51.1%
7. 충북대	2832	1360	48.7%
8. 서원대	1382	661	47.8%
9. 청주대	2727	1291	47.3%
10. 건국대글로컬	1961	904	46.0%

〈출처 : 2015 대학정보공시〉

우리대학이 개교 6년 만에 충북지역 4년제 대학(10개 대학, 특수대학 제외) 중 취업률 1위에 오르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1월 1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시한 자료(2015년 6월 기준)를 토대로 산출한 중원대의 취업률은 62.5%로 충북지역 4년제 대학 중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대학의 성공적인 취업률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대학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수와 학생간 '생애멘토링교수제(CMP)'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지정된 학과 개인 지도교수와 함께 ▶나의 인생 설계 ▶미리 쓰는 나의 미래 ▶칭찬을 통한 긍정적 마인드 형성하기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이를 통해 취업 및 학사경고자(유급) 상담 등 세부적인 멘토링이 이뤄진다.

또하나 학생성적 평가도 혁신적으로 바꿨다. 시험과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배우는 과정'에 초점을 뒀다.

강윤중 교무처장은 "학생 스스로 공부하고 학우들과 협력해 바른 인성과 학습태도를 발휘해야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평가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원대는 전문지식 교육 못지않게 인성교육에도 무게를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재학생들은 인성교육 6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중원대의 한 관계자는 "아낌없는 투자와 전략적인 교육혁신으로 중원대가 단기간에 충북권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성장했다"며 "대학평가를 위한 각종 교육성과 지표는 전국 상위권에 올라 있다는 점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부〉

2016 졸업과 새로운 시작

걱정말아요 그대♪





신입생에게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대학생활 했다고 말해요♬♪

2월 마지막주 4년 동안 중원대를 누렸던 졸업생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입학생들이 찾아왔다. 정든 교정을 떠나는 졸업 선배들이 낯선 곳에 처음 터를 잡을 입학생들에게 짤막한 소감을 전했다. 〈편집자주〉

임태균기자, tg0610@jwu.ac.kr



진아람(사회복지학과, 이사장상)

학교를 떠나며

학교를 떠난다니 아쉽지만 사회에 나간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 설레요!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주도적으로 학습목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언해 줄텐데 조언을 실천할 줄 아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해요~!



윤남진(사회복지학과, 괴산군 군의원)

학교를 떠나며

아쉬움이 남고 학교는 떠나지만 괴산군의 발전을 위해 배움을 실천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학교시설을 잘 이용한다면 일류대학을 다니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대학생으로써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미예(간호학과, 충남대병원 취업)

학교를 떠나며

졸업을 위해 학교에 돌아오니 반갑고 졸업하니 기분이 이상하다.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한가득이네요.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기숙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이용하길 바라고 학점관리를 잘 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화이팅입니다!



강소연(식품공학과, 요기요 취업)

학교를 떠나며

졸업이 기쁘지만 대학생활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아쉬워요.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학창시절 마지막 대학생활이니 즐겁게 잘 지내고 동아리나 학생회, 조교경험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많이 찾아서 해보시길 바래요!



이영우(생약자원개발학과, 산림치유지도사)

학교를 떠나며

졸업해서 매우 기쁘고 학우들과 헤어지니 착잡하고 아쉽다.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놀 때 놀고 공부 할 때 공부 할 줄 아는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김영롱(신재생에너지학과, 이케아코리아 취업)

학교를 떠나며

졸업식이 사회로 나가는 첫 걸음임과 동시에 학교와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졸업을 한다니 마음이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일학년 때에는 놀고 이학년 때부터 공부를 한다면 어떨까요? 토익공부는 필수더라구요! 토익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강동희(컴퓨터시스템공학과, 테크노벨리 필아이티 취업)

학교를 떠나며

열심히 대학생을 했다고 자부하기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이곳저곳 저의 발길이 닿았던 캠퍼스를 떠난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앞섭니다. 앞으로 제가 없는 학교는 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궁금합니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저보다 더 멋진 꿈을 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물려주고 시원하게 떠나려 합니다.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제게 중원대는, 열정을 펼치기 위한 큰 밑거름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누릴 수 있는 것을 먼저 모두 누려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학교 교수님들께서 항상 가까이에 계시는 것은 다른 학교와 다른 큰 장점입니다. 혹시 학업, 진로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같은 분야의 최고 위치에 계신 교수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해보세요! 이 외에도 우리학교는 학업 외에도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답니다. 놓치지 마세요!



모영원(의생명과학과, 성균관대약학대학원)

학교를 떠나며

그냥 얼떨떨하면서 실감이 안 나네요(웃음)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긴장하지 말고 하나하나 해 나아가시길 바래요! 너무 공부만 하지도 마시고 놀지만도 마시고 목표를 확실히 정해서 차근차근 해 나아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총학생회 GIANT

By the student for the student







1. 출마 계기 및 당선 소감

학교와 학생간의 그리고 학생회와 학생의 화합, 대학 4년을 좀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한 복지, 학교의 주인이자 고객으로서의 권리를 책임지고 개선해 중원대학교를 진정한 학생들의 학교로 변화시키고자 출마하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정성스레 투표해주신 유권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 김광표는 학우님들이 바라는 뜻과 의미를 항상 생각하며 공약 이행률 100%의 6대 총학생회 자이언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자이언트 이름의 의미

GIANT는 ANT(Alone? Not! Together.)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 하나하나는 작고 보잘 것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개미굴당 약 100만 마리의 개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징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 거대한 하나를 이루어 혼자선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을 풀어냅니다. GIANT는 학생 여러분과 여러분의 의견을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바꿀 것입니다.

3. 중점을 둔 공약

생활관 자치회 체계화 및 학생들과 총 간담회

현재 중원대학교에는 생활관 자치회가 존재합니다. GIANT는 이 생활관 자치회를 활성 및 체계화하고 학우님들과 생활관 직원 그리고 총장님을 모셔 학우여러분들의 생활관에 대한 불만사항을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규합하여 실속 있게 해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속버스 학교 앞 정차입니다.

고속버스 노선 변경 관련하여 3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 고속버스 정차에 따른 노선변경 학교 측 수요조사

둘, 동서울 에서 괴산을 운행하는 현 KD운송업 기업 측의 동의

셋, 노선변경 지역의 여론조사에 따른 경기도, 충북도의 노선변경 결정

경기대원고속버스 사측은 이익이 된다면 노선변경에 대해 우호 적이지만, 노선변경에 따른 지역 여론조사 반발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노선변경에 반발을 사고 있는 주된 부분은 괴산택시 측 입장입니다. 괴산 택시 측은 고속버스가 학교에 정차하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떨어져, 자신들의 피해를 입는다는 이러한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중원학우 분들은 교통약자입니다. 우리 중원대학생들을 돈벌이로만 보는 택시측 입장에서는 저희는 더 강하게 나가야합니다. 총학생회만이 아닌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노선변경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GIANT는 노선변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학교에 협력 요청. 셔틀 운행을 증가 시키는 방안을 내세울 겁니다. 이로서 저희가 뜻을 함께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권리를 찾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학우들이 관심 가질 만한 공약

셔틀버스 시간 증대

중원 학우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셔틀버스를 이용 할 수 있고, 비싼 택시비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학우 분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녁시간대의 셔틀버스 시간을 (18:00, 19:00) 증대시키겠습니다.

기숙사 복사기 설치

중원대학교 특성상 학우 분들 대부분이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 출력이 필요할 때 출력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관내 복사기를 설치하여 학우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관과 상의 후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후 학교 측이나 저희 GIANT에서 직접 계약을 하여 기숙사내 복사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국토대장정

중원대학교 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 참여할 수 있는 대외활동이 모자라다는 점을 개선하고 싶어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큰 대외활동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국토대장정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6년 1학기부터 면밀한 계획을 통해 여름방학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예상 경로는 충청도를 기준으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대장정을 하며 마냥 걸어 다니기만 하는 대장정이 아닌, 여름에는 자전거를 타기도하고, 단원들과 함께하며, 서로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리고 숨겨진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명소를 돌아다니며 끈기와 인내, 그리고 목표에 대한 성취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앞으로의 각오

학교와 학생간의 그리고 학생회와 학생의 화합, 대학 4년을 좀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한 복지, 학교의 주인이자 고객으로서의 권리를 책임지고 개선해나가며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GIANT는 당선된 직후부터 여러분의 대변인이자 지지자입니다.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대학생활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2016년 대학생활 GIANT가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임태균기자 tg061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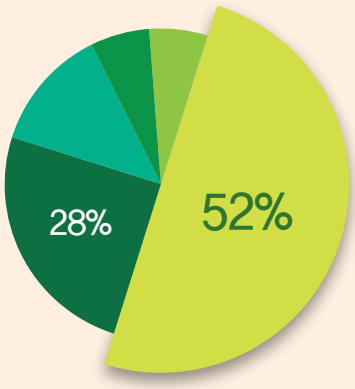
▶GIANT 총학생회 임원들. 왼쪽에서부터 재정사무국장 양영주, 문화체육국장 조광주, 부회장 이관식, 교육복지국장 김미래, 회장 김광표, 홍보국장 방호증, 기획정책국장 전찬영

제10호 2016년 3월 2일 수요일

새내기

그대들이 생각하는 학교는 어떤가요?

우리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원대학교의 첫인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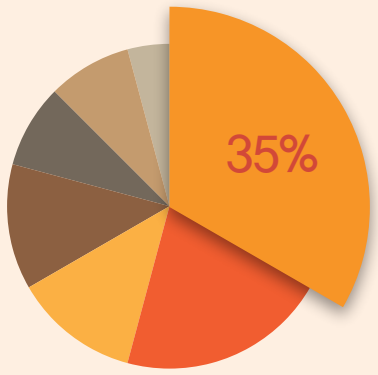


■ 크고 웅장하다. ■ 시설이 좋다. ■ 아름답다. ■ 외국 건축물 같다. ■ 기타

단위 : 퍼센트(%), 참여학생 : 400명

화려한 외관으로 유명한 우리 중원대학교, 많은 학생들이 규모와 웅장함에 놀란 모습이 역력했는데 역시나 그것이 질문지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반 이상의 학생들이 '크고 웅장하다, 넓다, 거대하다' 등 건물의 규모와 웅장함에 대해 느낀 점을 솔직히 답변해 주었다. 또한 건물의 독특한 건축양식 덕분일까 어떤 학생들은 '청와대나 백악관 같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하면 정부 건물로 쓰일 것 같다' 등 가지각색의 답변들도 넘쳐났다. 화려한 외부에 걸맞은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 대리석으로 된 내부 인테리어는 우리학교가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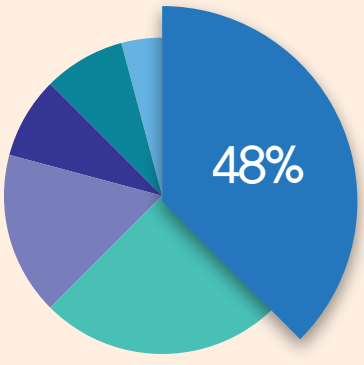
우리 학교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 주변 지인들의 추천 ■ 적성에 맞는 과에 지원하기 위해 ■ 학교의 교육제도와 장학제도가 마음에 들어서
■ 입시 설명회를 듣고 ■ 영어로 특화 되어있다고 해서 ■ 학교 외관이 예뻐서 ■ 기타

1/3 이상의 학생들이 주변 지인(학교 선생님, 아는 선배, 현재 중원대 재학생 등)들의 추천을 통해 지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학교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전망이 좋은 학교로, 학생에게 추천을 많이 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다음 답변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적성에 맞는 과에 지원한 모습을 알 수 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모습이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노인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어 국제적 역량을 갖춘 중원대학교에 지원했다'는 등의 답변들이 많았다. 또한 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시 설명회가 상당한 효과가 있는 모습이다. '입시 설명회 때 교수님의 열정에 반하여 지원하게 됐다'는 상당 수의 학생들이 있었고 입시 설명회를 통해 학교의 교육제도와 장학제도가 마음에 들어서 지원한 학생들 또한 많았다. '훌륭한 교육제도와 장학제도를 지닌 학교'라는 등 좋은 이미지를 쌓기 위해 앞으로 더 활발한 외부 입시설명회 활동이 필요할 것 같다. 해를 거듭할수록 저 두 항목의 퍼센티지가 올라가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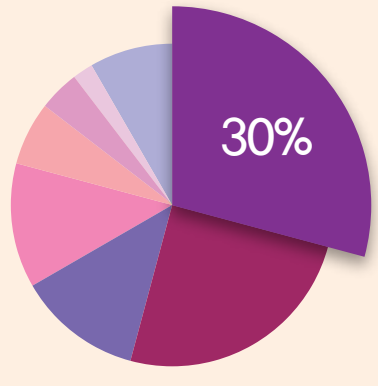
대학생활의 꽃은 "동아리"입니다. 관심 있는 동아리가 있다면?



■ 봉사 동아리 ■ 미 응답 혹은 모르겠다. ■ 영어 관련 동아리 ■ 스포츠 관련 동아리
■ 각종 동아리 ■ 기타 동아리

많은 학생들이 가장 답변을 어려워했던 질문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답변을 어려워했고 '미응답 혹은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의외로 봉사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다고 답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심지어는 우리학교에 '둥글레'라는 봉사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도 질문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론 교내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교류하는 영어 및 외국어 관련 동아리를 만들자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이 있었다. 이는 정형화된 외국어 공부의 틀을 깰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역시나 20살이 된 만큼 자기 관리 및 미용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스포츠 관련 동아리에 들고 싶다고 답변을 줬고 각종 자격증 취득 동아리들을 만들고 싶다는 답변도 있었다. 특이한 답변으로는 '개그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 '음주 동아리 창설하기'라는 답변도 있었다. 현재 우리 학교는 개교 된지 얼마 안 되어 교내 동아리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기존의 재학생과 예비 신입생들이 주저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를 개설해 학생들의 동아리 선택의 폭을 넓혀 줬으면 하는 바이다.

대학생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 학과 생활 열심히 하기 ■ 연애하기 ■ 여행 다니기 ■ 전공 공부 열심히 하기
■ 외국어 공부하기 ■ 운동하기 ■ 기숙사 생활하기 ■ 기타

많은 학생들이 연애를 하고 싶다고 답변 할 줄 알았으나 의외로 '학과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답한 학생들이 많은 것을 위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시나 다음 항목에서 '연애'와 'CC' 예비 신입생들의 캠퍼스 로망에 대한 작은 소망을 엿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등학생 때 틀에 박힌 생활을 한 덕분일까?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명 '배낭여행', 대학생 때가 아니면 누리지 못 할 즐거움이기에 학생들의 '충청도 여행, 해외여행, 2박 3일 무전여행 해보기' 등의 답변을 통해 고3때 받은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것이 느껴진다. 이와 다르게 '대학생이 배움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외 연수를 가고 싶다고 답한 학생들이 있었다. 기타 개성 있는 답변으로는 '토하면서 술 마시기, 학식 먹기, 집안 들어가기' 등 '그래도 아직 고등학생이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답변들이 있었다. 질문 항목 중 가장 1차원 적인 질문이었지만 가장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청춘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름을 알고 성실한 대학 생활을 해주었으면 한다.

류양무기자 solo@jwu.ac.kr

2016 글로벌 리더십 영어 캠프 성료



▶2016학년도 글로벌 리더십 영어캠프를 마치고 참가한 학생들과 외국인 교수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원대학교(주관 영어교육원)는 1월 18일부터 2주간 대학 특별강의실에서 '2015 글로벌 리더십 영어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영어 캠프는 2016학년도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양한 국가의 문화 경험을 가진 원어민 영어 교수 10명이 세계 각국의 문화에 대한 내용을 즐거운 연극, 게임, 팝송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쉽게 이해가 가도록 해 참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영어 캠프는 재학생들의 영어 사용 기회 확대와 영어 학습 환경 지원을 위해 글로벌 이슈,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국제 영어 연극, 글로벌 비즈니스 스킬, 문화 엑티비티 등의 주제로 4시간 정규 수업, 단체 Activity 진행, 1:1 또는 소그룹 튜터링 진행, 팀별 영어연극 연습, 저녁 이벤트 (세계의 음식 만들어 보기, 게임 나이트 등) 들의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정규과목 이외에도 아이스 브레이킹 프로그램(상담센터 주관),인성 함양 특강·사고의 전환 (인성교육센터 주관)과 대학 시설 체험 프로그램으로 실내 골프와 실내 수영장, 스포츠센터에서 스포츠 활동도 함께했다.

2016학년도 예비신입생 이주환 학생은(의약바이오학과) 캠프를 마치며 " 외국인 교수님들의 눈높이 강의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더 커져갔다"며 "힘든 일정에 적응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재미있고 유익했다." 고 소감을 말했다.

캠프를 계획한 제니퍼 교수는 "캠프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항상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했으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그룹이었다" 며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마인드를 경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수업을 제공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가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단순한 영어 캠프의 틀을 깨고 학생들에게 체,덕, 지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원대학교는 매년 동계 방학을 이용해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십 영어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편집부〉

김현수, 카누슬라럼 국가대표팀 지도자 발탁



▶김현수 신임 카누 슬라럼 국가대표팀 코치(가운데)가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 김현수(석사졸업예정) 학생이 2월 17일 카누슬라럼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발탁되었다. 김현수는 대한카누연맹에서 지난 1월 28일부터 모집한 2016년도 카누슬라럼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공고에 지원해 당당하게 선발됐다.

김현수 카누슬라럼 국가대표 코치는 광문고등학교때 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해 2010년 중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에 입학해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 2013년 아시안 선수권대회 드래프트 3위를 차지하며 한국 최초 국제대회 입상을 했으며 각종 국내 대회에서 1인자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 명실상부 국내 최고였다.

약 4년여 간의 국가대표 선수생활을 접고, 국가대표 코치로 첫 걸음을 하는 김코치는 실전에 쌓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도 함께 무장하기 위해 중원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2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는 2월 19일 석사학위도 수여받게 되는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됐다.

김현수 국가대표 코치는 "중원대학교 선수로서 한국 최초 국제메달을 따냈고 이제는 중원대학교 졸업생이자 국가대표팀 지도자로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어 영광이다"며 "그동안 배운 이론과 실전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세계 최고의 선수로 양성하는데 최선의 정진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한국 카누 슬라럼 국가대표팀에게 많은 응원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수 코치가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현재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 출전을 대비하고 2016년 각종 국제대회를 대회에 출전, 메달 사냥에 나선다.

〈편집부〉

중원대학보를 함께 제작할 기자를 모집합니다

go



1. 모집대상	중원대학교 재학생 (학년제한 없음)
2. 자격요건	학점 2.75이상 (신입생은 해당사항 없음)
3. 모집인원	4명
4. 제출서류	–언론장학생 지원서 (지원서는 홈페이지에 첨부한 서식으로 작성)
5. 제출기한	–2016. 3. 21(월) 오후 6시까지 제출 – E–mail 제출 zooyeun@jwu.ac.kr (언론장학기자 지원자 '홍길동'의 제목으로 제출)
6. 활동혜택	1. 언론장학금, 취재비, 명함, 언론기자 장학증서 2. 취업 면접시 스펙 가산점으로 적용되는 기자 경험
신청문의	전화 010–7475–9202(국장) 또는 카카오톡! 날리기 oswin6

장래에 언론계나 홍보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교를 사랑하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궁금한 점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사(敎師)의 소명은 '교육'을 통한 참된 '인재양성'이지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12명의
중원대 교수들이 힘을 모아 꾸준히 재능기부를 펼친
'MDYD 재능기부 봉사단'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아동들에게 꾸준히 교육봉사를 제공하고 있는 숨은 천사들이 있다. 바로 'MDYD 재능기부 봉사단'의 이름으로 힘을 모아 선행을 베풀고 있는 12명의 중원대 교수들이다. 미술, 스포츠, 문화 등 저마다의 전공지식과 경험을 살려 괴산지역아동센터와 괴산 다문화센터의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도와주고 여러 체험학습을 통해 견문도 넓혀주면서, 중원대학교와 괴산 지역사회와의 돈독한 협력관계에 앞장서고 있는 봉사단체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 지역아동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자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참된 인재들을 양성하려 힘썼던 MDYD 봉사단원들인 세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기용 교수(교양학부) 이주희 교수(한국학과) 김철수 교수(종교문화학과)

교양학부 이기용 교수 교육자로서의 소명, 참된 인재 양성하기

My Dream Your Dream '나의 꿈 너의 꿈을 찾자

- MDYD 재능기부 봉사단은 2015년 3월부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괴산군민들과 중원대학교와의 교류증진을 위해 12명의 중원대학교 교수님들이 모여 교육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MDYD 는 My Dream Your Dream 이라는 뜻으로 '나의 꿈 너의 꿈을 찾자' 즉, 재능기부를 시작하는 본인은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의 꿈을 실현시키고, 교육봉사를 받는 학생은 진로탐색을 통해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와 진로의 꿈을 찾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육학 분야를 깊게 연구하고 있는 저의 경우에선 참 교육의 실천의 한 과정으로서 이 학생들을 앞으로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제가 봉사단을 꾸리게 된 계기는 '희망이음'이라는 선교복음단체를 통해 물질적으로 기부를 시작하면서입니다. 이후 물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부뿐만 아니라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더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의미 있게 나누고자 무료 교육봉사를 통해 재능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재능기부를 주변에도 추천하면서 교내 중원대 교수님들을 끌어모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교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여 재능기부에 발 벗고 나선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개인시간을 쪼개서 좋은 취지의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재능기부 봉사는 1인당 1년에 5~6번 정도하며 12명의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매주 월요일 6시 30분~7시30분 1시간동안 괴산지역 아동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교육봉사를 진행합니다. 대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15~20명의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습니다. 수업구성은 학생들의 진로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적성검사를 통해 본인이 흥미를 가진 진로분야를 세분화하고 미래직업에 대해 알아가면서 해당 직업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견문을 넓혀주려 했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은 만큼 자아정체성이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진로탐색을 통해 봉사단의 목적인 학생의 꿈과 장점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대학의 3대 기능인 '교육','연구','봉사' 실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 추구

대학의 3대 기능인 '교육','연구','봉사'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재능기부 봉사의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봅니다. 교육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중원대학교가 함께 발전함으로써 괴산 지역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내 교수들이 직접 발로 뛰며 봉사를 하면서 우리학교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에 더욱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형성된 지역사회와 교수들의 다리를 놓는다면, 더 좋은 관계형성으로 학생들의 참여까지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중 학생들을 보조하여 같이 수업을 진행해나간다면 사제와 함께 뜻 깊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의사가 있는 학생과 교수님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과 이주희교수 때론 엄마같이 때론 스승같이, 힘이 되는 멘토

- 현재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항상 괴산지역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기용 교수님의 선행소식을 듣고, 저녁시간을 쪼개어 흔쾌히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과 벌을 주어 정해진 사회의 규범에 잘 적응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을 보고 가족관계 중심으로 바르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애정을 많이 주려 노력했습니다. 맞벌이로 부모님이 바쁘거나 주변의 친구나 놀 거리가 많아 더 이상 굳이 부모님과 대화하려 하지 않은 요즘시대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깨달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키워본 본인의 경험상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과 '신뢰'는 자녀의 성장에도 크나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직장생활로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일수록 짧은 시간이라도 깊게 놀아주고, 안아주기나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스킨십을 함으로써 자녀에게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것 또한 아이에게 큰 힘이 되어 줍니다.

그렇기에 아직은 스킨십과 애정이 낯선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센터 아이들에게 처음엔 그저 친근한 엄마처럼 다가가려 했습니다. 바쁜 일상생활로 가정에서 방치되어 관심을 받지 못해 과잉행동을 보여주는 아이에게, 다 같이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잘했을 때는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또 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때로는 읍참마속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상과 벌을 주면서 행동교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업에 잘 참여한 아이에게는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며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고, 수업시간에 지각한 아이에게 간식을 사주지 않는 것으로 따끔한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간식을 먹고 싶어 하는 아이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해야하는 제 마음은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규칙을 잘 지킬 때는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벌을 받는 정해진 사회의 규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그 속에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언의 행동으로서 아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다음시간에

는 지각했던 아이가 제 시간에 와서 수업에 잘 참여하여 제대로 규율을 지킨 것에 더 큰 칭찬과 함께 다독이며 교훈을 줬던 적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모범적이고 조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교육의 최종목표

또한 어릴 적에 형성된 부모님과의 친밀도가 나중에 커서도 아이에게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부모심리학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자기 성씨와 뿌리가 있는 부모님과의 연대관계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들이 '부모님과의 유대관계가 없는 아이들이 미래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었는데, 20년 후 결과를 추적해보니 성공한 아이는 본인의 주변관계 즉 꼭 부모가 아니라도 선생님이나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을 본 순간 비록 바쁜 일상생활로 가정에서 관심이 소홀한 아이들 일지라도 저의 도움으로 힘을 얻고 인생의 멘토가 되어 줄 수 있다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더욱 스킨십하며 유대감을 쌓으면서 신뢰를 주고, 아이들 본인도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사회에서도 굳건히 뿌리내려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 안아드리기를 장려하면서 가정에서 부모자식 사이의 애정 깊은 수직관계를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님과의 연대가 긴밀하게 되어 있을 때 수평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형제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없듯이, 신뢰와 믿음이 바탕으로 된 부모자식간의 수직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자신의 주변사람인 수평관계도 건강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주 끌어안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면서 정서적 만족감을 유지하고 그 관계를 탄탄하게 다져가도록 지도했습니다.

아이들과 정을 나누며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려 했습니다. 비록 몇 번의 만남이었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그래도 자신을 믿어주고 애정을 주었던 멘토들이 있었기에 비뚤게 가지 않고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에 나가서도 모범적이고 조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교육의 최종목표였습니다.

종교문화컨텐츠학과 김철수교수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글로벌인재

- 괴산지역과 함께 성장해가는 중원대학교가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발전에 공헌한다는 취지로 교육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생'의 참된 의미를 살려 '내가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내가 산다' 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웃음).

그 중에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세계문화와 대한 다양성을 기르고 한국문화 또한 알아보는 수업을 제공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지금 같은 글로벌 시대에 음성에서 성장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처럼 괴산에 있는 아이들도 세계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자신의 뿌리인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 두 가지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틈새시장에서의 언어적 인재로 육성

자신의 부모님을 통해 습득한 문화는 그 자체만의 특별성을 지니고 있고, 특히 요즘 현대기술인 IT와 접목한다면 언제든지 상품화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선 언어가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언어의 사투리든 소수언어이든 자신의 어머니나라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틈새시장에서의 언어적 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외국과 우리나라가 교류할 때 가장 쓰임 받는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단 영어만 잘하는 사람보단 그 지역의 문화와 소수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가 더 중요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육봉사를 하며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우리가 도우는 입장이 아닌,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아까운 인재들로 여기고 교육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1%가 넘는 비율이 다문화 학생인 만큼 우리나라도 점점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앞으로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물론 수업을 받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이가 어려 아직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수업 중 우리나라의 추석과 다른 나라의 명절을 비교해보며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계속 말하도록 유도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가서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것에 비해 본인은 부모님을 통해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강점을 되새겨줌으로써 자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진로선택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학교의 특성을 살려 아이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운전체험이나 스포츠를 배워보면서 아이들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중원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재능기부 참여하고, 사제들이 합심하여 인재양성의 길을 닦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해 자신에게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최예린기자 choiyerin@jwu.ac.kr



▶이기용 교수가 괴산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교육봉사를 하고 있다.



▶김철수 교수가 다문화 센터에서 아이들과 영상을 보며 수업을 하고 있다.

중원은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JWU in 人
제10호 2016년 3월 2일 수요일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라



중원대 항공재료학과에 재학 중인 윤대일 학생이 ’2016 KT&G 아시아 대학생 창업교류전’을 위한 한국대표팀 선발전에서 연합팀(팀명 : 헤르메스)으로 참가해 2위를 차지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한 국내 유일 창업아이템교류 국제행사에서 2위를 차지함은 물론 내년 3월에 있을 ’2016 KT&G 아시아 대학생 창업교류전’에 한국대표팀으로 선발되는 영광을 얻었다. 좋은 성적과 결과를 얻은 윤대일 학생을 중원대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다. 〈편집자주〉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창업교류전 국제행사에서 2위를 차지하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우선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워낙 큰 대회였기 때문에 상에 대한 욕심 없이, 입상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참가하게 됐는데 2위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회가 정확히 어떤 대회였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과 중소기업청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KT&G, 산업통상자원부, 창업진흥원, 메리츠종금증권이 후원하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종결선에 총 9팀이 출전하게 됐고 7위까지 한국대표팀으로 선발되어 1위와 2위의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7팀을 2팀으로 나누어 내년에 있을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혹시 대회에 출전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우리학교 창업관련 동아리 ‘N.I.M’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꽤 많은 편이었는데, 항상 작은 공모전만 나가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아이템 중에서 큰 공모전에서도 통할 것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출전하게 됐습니다.
짧게나마 저희 동아리 소개를 하자면 이공대, 인문대 할 것 없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기술적 아이템, 혹은 창업 아이디어를 착안해 내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가입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PT발표와 기획도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고 국제대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어로 발표를 해도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더 좋은 아이디어로 재탄생 할 수 있고 본인의 발표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전파차폐를 이용한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찬사를 받아 2위를 하셨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전파차폐와 아이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속성을 띄는 물질들이 전파차폐를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차폐란 ‘가려 막아 덮음’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따라서 전파를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내어 이를 보도블록에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 보도블록은 전파차폐를 역이용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파로 탐지가 안 되는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탐지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3층 구조로 된 보도블록으로 층층마다 다른 종류의 금속물질을 넣어 어떤 곳은 탐지가 되게, 또 어떤 곳은 탐지가 안 되게 제작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무선 탐지 기계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탐지 기계가 보도블록을 탐지하여 소리가 나거나 진동으로써 시각장애인분들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기존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은 비장애인들이 만들다보니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점자블록이라 불리는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은 방향을 알려주는 일자형 점자 A형과 멈춤을 뜻하는 원형의 점자의 B형이 있습니다. 단지 이 두 가지로는 시작장애인의 방향성이 되어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시공사에서 점자블록을 신중을 기울이지 않고 만들다 보니 여기저기 비어있는 점자블록과 방향이 이상한 점자블록을 우리는 많이 엿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분들은 점자블록을 신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파차폐를 이용해 보도블록을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개인이 아닌 팀을 꾸려 대회를 준비하셨는데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와 기술적 부분을 맡았고 서로 각자의 분야를 확실히 정해놓고 대회 준비를 하다 보니 딱히 그런 부분에선 부딪히거나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를 제외한 나머지 두 학생이 서울에 살다보니 주말마다 서울에서 만나 이틀 밤을 새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다보니 정신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3학년이신데 학과 공부에 열중할 시간도 부족하실 텐데 어떻게 대회 준비에 시간 분배를 하셨는지요?

솔직히 말하면 학업에 집중하다보면 이런 대회는 놓치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 학점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각종 공모전에 많이 참여하곤 했습니다. 학점관리는 수업시간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나머지 그 외적인 시간은 거의 공모전을 준비하는데 할애한 것 같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학교 모든 학생들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학점이 물론 중요하지만 각종 대외 공모전을 통해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사회에 나갔을 때 자신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는 과거 중견기업에 취직을 해봤고 그 곳에서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감과 불안한 미래, 그래서 저는 좋은 아이템 하나 생각을 해내서 요즘 창업시대에 걸맞게 제가 벤처기업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간단한 아이템이라도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 창업 경험을 여러 번 쌓아 남들과 다른 기술을 가지고 블루오션이든 레드오션이든 어디든 뛰어들어 성공신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제 목표이자 꿈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작은 규모라도 최대한 많은 공모전과 대회에 지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공모전과 대회에 자주 참가한다면 견문이 넓어지고 잘 만든 PT들을 많이 접하게 될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은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고 좋은 경험을 통해 한단계 성장하게 된다고 봅니다. 매사에 도전하는 자세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1,2 학년 때 기숙사에만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숙사에서 허송세월을 보낼 바에는 차라리 학교를 떠나 놀러 다니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학년 때부터 공모전에 많이 참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익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공모전과 같은 대외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류양무기자 solo@jwu.ac.kr

학교에 무슨 일이? 학교의 스마트한 변화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스마트'는 교복브랜드인줄로만 알고 있었지만 현재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스마트TV 등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여진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변화의 물결에 중원대도 '스마트'를 사용한 단어가 생겼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바로 '스마트캠퍼스'입니다. 현재는 시범운영 되고 있는 '스마트캠퍼스' 사업이 활용성이 있다는 의견보다는 불편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변화에 잘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본격적으로 '스마트캠퍼스'가 운영될 때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학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 알아보도록 해요!



1 첫 번째 모바일 ID입니다.

모바일 ID는 한마디로 중원대학교 내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학생증'입니다. 도서관 내 유·무인 대출 기에서 QR코드를 인식시켜 도서를 대출 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① 앱스토어에 들어가 '중원대학교 모바일 ID'를 검색한 후 설치한다.
②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 한다.
③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도서관 내 유·무인 대출기에 인식 시킨다.



2 두 번째 전자출결입니다.

전자출결, 말 그대로 수동으로 기입하던 기존의 출석방식이 아닌 휴대폰을 통해 정해진 강의실 위치에서 수업 시작 전 출석체크를 하는 방식입니다. 대리출석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순 있으나 휴대폰의 유·무, 위치정보의 오작동, 출석체크 실패 등 오류로 인해 많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방법

첫 번째 ①, ② 1번과 동일.
③ 강의실에 들어가 '출석체크'를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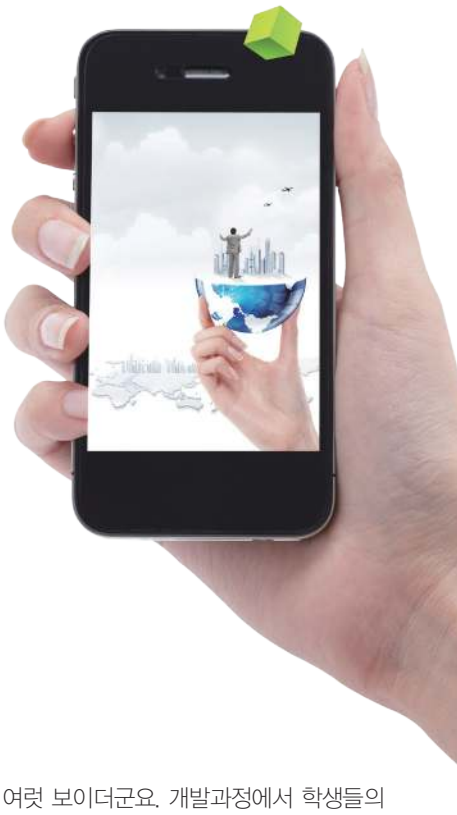


3 세 번째 버스예약시스템입니다.

14년도에 일괄 신청한 국민은행 기반 학생증을 이용해 통학버스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용방법

① 학생역량개발처에 방문하여 '통학버스관리 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학생증을 사용하여 예약하고자 하는 표의 가격 이상을 충전한다. (본관 S구역)
③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표를 예매한다.



이상으로 '스마트캠퍼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초기단계이기에 '중대전'에도 사용법을 여쭤보거나 같은 불편사항을 토로하는 학우들이 여럿 보이더군요. 개발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 한 점이 아쉽지만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서 단순히 불편을 토로하는 것보다 발전성 있는 방향으로의 의견 및 건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드는 '스마트캠퍼스', 스마트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임태균기자 tg0610@naver.com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 안내

개인상담 1:1 대면상담
성격, 대인관계, 정서안정
스트레스 관리, 진로 및 적성
성과 이성

집단상담 상호교류 성장모임
자기성장, 대인관계
진로탐색, 스트레스 감소

심리검사 나와 타인 이해
성격검사, 진로검사
학습검사, 인성검사
지능검사, 투사검사



➡ 중원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등 중원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 야간상담(18:00~21:00)도 가능해요! 단, 예약제 운영!!

이용방법

직접방문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 접수상담 → 맞품검사 및 개인상담 같은 문제 친구들과 나누기 전문기관 연결

중원대학교 | 학생상담센터
방 문 상 담 : 학생회관(S동) 813호 학생상담센터
전 화 상 담 : 043-830-8143~5
온라인상담 : http://counsel.jwu.ac.kr
이 용 시 담 : AM 9시~PM 6시 – 야간상담 PM 6시~PM 9시

제10호 2016년 3월 2일 수요일

스펙 경험 영어공부

세 마리 토끼를 다 휘어잡는 법!



김현지 지은비 최수지

대학생의 방학은 생각보다 길다. 초중고 때와는 달리 무려 2달 반, 10주 남짓의 긴 자유시간이 주어지니 마음만 먹으면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여행, 자격증 공부, 아르바이트 등 그동안 못해본 여러 가지 교외활동을 방학 중에 하겠지만, 그중 우리학교에서도 영어공부, 문화교류, 스펙 쌓기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한다.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주최하는 Fullbright 영어프로그램과 중원대에서 진행되는 JWU 초등영어캠프가 그 예이다. 방학 중에 남들보다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자신만의 특기를 잘 살려 서류면접, 인터뷰 면접을 거쳐 스펙, 경험, 영어실력 세 마리 토끼를 다 휘어잡은, 근면성실한 중원인들의 활동스토리를 들어보자.



▶지은비 학생(왼쪽에서 첫 번째)이 풀브라이트 ETA학생들과 태권도실습실에서 기념촬영는 모습.



▶최수지 학생(오른 쪽에서 두 번째)이 영어캠프에서 학생들과 공연하는 모습.

1) Fullbright English Teaching Assistantship (ETA) 프로그램의 RA – 식품공학과 12학번 지은비

저는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주최하는 풀브라이트 ETA 프로그램의 RA 직책에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교류를 위해 선발된 미국 원어민 장학생들 (통칭 ETAs)이 중원대로 와서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배워야 할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교육받습니다. RA는 말 그대로 Resident Assistant 로, 이 미국 장학생들이 중원대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는 동안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여 한국문화와 한국어 수업을 원활히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괴산 현지에도 잘 적응하여 거주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또 RA는 ETA들이 한국문화나 한국어를 배우는 수업 때 ETA들이 원활하게 수업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부가적으로 우리문화나 예절들을 소개해주면서 이해를 돕기도 합니다. RA로서 6주간 70명의 ETA들의 현지적응을 도우면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원대 학우들에게도 꼭 한번쯤은 RA직책에 지원해 볼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캠프에 대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어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학년들은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조급할 것 없이 처음해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보세요. 용기 있는 자가 그 승리도 쟁취할 수 있을 것 입니다.(웃음).

2) Fullbright English Program의 Counselor – 간호학과 14학번 김현지

풀브라이트 영어프로그램은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주간 중원대에서 숙식하며 영어를 배우는 캠프입니다. 먼저 카운슬러는 쉽게 말해 프로그램 기간 중 제 2의 엄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웃음). 학생들이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은 잘 챙겨왔는지, 육체적으로는 건강한지, 특별하게 복용하고 있는 약은 매 시간마다 잘 먹고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의 팀원 학생들을 일일이 챙겨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전체과정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팀원들을 곁에서 돕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풀부라이트 영어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인 영어의 실생활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카운슬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들과 뛰놀며 같이 프로그램을 즐기다가도 '한국어 사용금지' 같은 프로그램의 규칙을 어긴 학생이 있을 때는 벌점을 줌으로써 그에 합당한 벌을 주기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캠프를 하면서 여러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카운슬러는 모든 일을 잘 관리 할 수 있는 '멀티태스커'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열정과 책임감을 갖은 사람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 영어권으로 취업이나 여행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추천해 주고 싶을 정도로 항상 파이팅 넘치는 미국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구열에서도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JWU English camp 의 Assistant – 식품공학과 12학번 최수지

여름 방학 때 우리대학에서 총 2주간 진행되는 '2015 여름방학 리더십 함양 단기집중 초등영어캠프'와 '2015 음성 리틀 반기문 리더십 함양을 위한 배움 중심, 인성강화, 소통영어 및 직업체험 영어캠프' (통칭 중원 초등영어캠프)에서 보조교사로서 활동했습니다. 중원 초등영어캠프에서 보조교사의 역할은 각 반의 담당 교사를 보조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식당부터 기숙사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도하는 일을 주로 맡습니다. 영어캠프의 반 편성은 리딩, 라이팅, 리스닝, 스피킹 4개의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반 마다 1명의 담당 교수와 2명의 남, 여 보조교사가 10명가량의 학생을 지도하게 됩니다. 보조교사는 캠프가 시작되기 전 2~3일간 자신이 맡은 반의 컨셉대로 교실을 꾸미는 것부터 담당 원어민 교수와 학생들의 연결다리가 되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곁에서 부가설명을 돕는 것까지 전반적인 캠프의 진행을 위해 힘씁니다. 특히 캠프의 마지막 날 있는 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해 틈틈이 학생들을 장기자랑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영어캠프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하면서 원어민 교수님들과의 교류로 영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데 자신감을 얻고,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실력을 갖기 위해서 본인을 채찍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캠프 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호불호가 뚜렷한 어린 학생들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용기를 배우기도 하였습니다(웃음). 그렇기에 이런 좋은 기회를 재학생은 물론 새내기들도 도전해보기를 바랍니다.

최예린기자 choiyerin@jwu.ac.kr

영어능력자 되기 선발 Tip

1 서류면접

- 서류면접은 대개 지원자의 경험과 스펙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스펙은 비단 교외에서 쌓은 스펙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교내 공모전이나 학교생활을 하며 얻었던 깨달음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진솔한 스토리를 최대한 자세하게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열의와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강조하거나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교내 원어민 교수님들과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여러 번 자기소개서를 고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기소개서를 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인터뷰 면접

-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질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작성한 답변을 미리 잘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면접상황에 닥치면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지는데 그럴 땐 자신이 작성한 답변 중 '핵심단어'만 미리 암기해두고 계속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브라이트 카운슬러 선발면접의 경우 개인면접 뿐만 아니라 단체면접도 보게 되는데, 이때 '협동심'과 '리더십'을 면접관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합니다. 설사 면접 중 실수를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보려 노력하고, 웃으며 팀원들을 이끄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영어프로그램 인만큼 실제 영어실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에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계속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중원대학교는 어땠을까?

교환학생 후기

고향을 뒤로 하고 이국만리로 유학 온 친구들의 한 학기는 어땠을까? 자유롭지 못한 제 2외국어로 인한 불편함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느라 고향생각 났을 하루하루,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친구를 만나며 적응해가는 모습, 새로운 나라에 떨리는 맘을 가지고 왔을 때부터 헤어짐이 마냥 이쉽던 이별의 순간이 있었지만 이젠 고향으로 돌아간 두 중국 친구의 한국 유학 후기를 들어보자.



용단니

안녕하세요. 15년도 1학기에 교환학생으로 중원대학교에서 재학한 융단니입니다. 한국에 가기 전엔 마음이 설레면서도 또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한국친구를 못 사귀면 어쩌니?"라며 중국의 교수님도 걱정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설레는 마음과 함께 중원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중원대의 멋진 건물들이 마음에 들었었어요. 학교에 아름다운 골프장이 있고 수영장도 있어서 정말 멋졌어요. 또한 한국의 시골에 있어서 그런지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개학 후에 한국인 룸메이트와 많이 친해졌어요. 그 친구의 소개로 한국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그렇게 한국어로 대화를 할 기회가 자주 생기니 자연스레 한국어 실력이 늘었어요. 다시 한 번 룸메이트에게 감사해요!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교수님들의 영향도 컸어요. 교수님들께서 수업이 없을 때에는 함께 유학 온 중국인 친구들과 저를 마치 부모님처럼 챙겨주셨고 수업에서는 제겐 어렵던 한국어 문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셨던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이란 나라를 직접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꼭 다시 찾고 싶어요! 그 땐 한국의 각지를 여행할꺼에요! 물론 중원대도 빠질 수 없겠죠? 고마워요 모두들.



이호림

안녕하세요! 교환학생으로 중원대학교에 다닌 이호림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엔 "중국에서 유행한 한국의 치킨이랑 맥주의 조합이 정말 맛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2월 26일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1시간 3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은 깨끗했고 공항의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란 나라에 좋은 첫인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중원대학교 선생님과 함께 중원대학교로 향했어요. 학교에 넓게 펼쳐진 녹색 잔디, 녹색 잔디에 있는 골프장에 놀랐었어요. 한국음식은 중국 음식보다 담백함이 강해서 싫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음식을 꼭 먹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 오니 한국음식이 생각이 나는 거에요. 룸메이트와 함께 먹었던 치킨이 제일 기억에 남고 여러 가지 술 게임과 함께 나누던 이야기들까지 멋진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중국에선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가 많았는데 한국에서의 과제는 발표위주의 수업이라는 점이 달라 걱정도 했지만, 한국교수님들께 질문을 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셨기에 무리 없이 공부 할 수 있었어요.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잘해주신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걱정되었던 한국어도 한국친구와 놀러 다니고 특히, 어려운 한국어 발음을 잘 알려준 친구들 덕분에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번 유학생활은 평생 못 잊지 못할 기억일거에요. 중원대학교에서 짧게나마 유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니 한국 친구들이 보고 싶네요. 사랑해 친구들!

임태균기자 tg0610@naver.com

ENGLISH CAFE에 드루와



조별과제할 공간이 없다고? 친구들과 설탕물 한 잔하며 얘기를 나눌 곳을 찾는다고?
고민할게 뭐가 있어 잉글리시 카페로 오세요!



친구들과 오순도순 모여 보드게임 한 판 할 곳을 찾는다고? 각종 카드게임부터
브루마블, 클루, 마작, 다트 등 다양한 게임을 카페에서 무료로 사용가능!

학업에 지친 당신! 달달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끼고 싶나요?
중원대생이라면 1인 2잔까지 다양한 종류의 차와 코코아,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

친구와 함께 탁구를 치고 싶나요? 연인과 함께 포켓볼을 치면서 데이트 할 장소를 찾나요?
고민할게 뭐가 있어 잉글리시 카페로 오세요!

맨날 책으로만 공부하는 영어가 지겨울 땐?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외국인 교수님들이 모이는
Hot place 잉글리시 카페! 언제든지 프리토킹이 가능하며, 원하는 교수님과 1:1 튜더링공부도 신청가능!

OPEN
월요일에서 목요일
15:00 ~ 22:30 까지
수 많은 혜택이 있는
잉글리시 카페!
위치 : 국제교류원 옆

제10호 2016년 3월 2일 수요일

중원에서 능력자되기!

중원대 400% 활용법

중원대에서의 4년간의 캠퍼스 라이프동안 과연 무엇을 할 것 인가? 새내기부터 졸업생까지 대학생활을 하면서 한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다. 동아리, 외국어공부, 스포츠시설 이용 등 다양한 메리트가 가득한 중원대를 200% 아니 400%는 더 잘 활용하여, 스펙의 시대에서 살아남아보자.

외국어실력 향상 시키기 (원어민 교수님들과 함께)

① 교내 3층에 있는 '영어카페 활용하기'! 중원대 재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이 곳에서 보드게임하기, 음료마시기, 수다떨기가 가능하다. 게다가 이 모든 게 무료다.



② '튜더링' 프로그램! 튜더링은 외국인 교수님과 학생이 1:1로 1회에 25분씩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신이 공부할 것을 미리 챙겨가서 공부해도 좋고, 요즘 같이 영어 말하기가 중요한 시대에 자유로운 말하기 공부를 해도 좋다. 최대 1주일에 2회씩 신청가능하며, 3층 영어교육원에서 튜더링 스케줄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맞는 시간대의 교수님을 찾아 예약하면 된다.

③ 외국인 교환학생과 룸메이트! 우리학교는 학과에게 배정된 기숙사 내부에서 자유롭게 자기 방과 침대를 선택하여 입사할 수 있다. 과마다 다르지만 해당과에 보통 중국인, 러시아인 교환학생들이 학기마다 중원대에 온다. 평소 외국어에 관심이 많다면, 또는 쉽게 외국인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이참에 같은 방을 써보며 이야기 할 기회를 늘려보는 것은 어떨까? 생활 외국어실력이 증가함은 물론 서로의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만약 룸메이트가 되지 못하더라도 같은 기숙사를 쓰기 때문에 자주 마주치니, 반갑게 먼저 인사해보자! Hi~!



푸르른 잔디와 넓은 수영장에서 배워보자!

① 수업도 존재하는 골프배우기! 코스마다 가격이 다르며 재학생은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적다. 또한 골프학과 전공수업을 들으면 무료로 필드에 나가 골프를 칠 수도 있다. 또 교내 스포츠센터 내부에 스크린 골프부터 골프 연습장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연습이 가능하며, 바로 옆 헬스장도 월별로 요금을 끊는다면 같이 이용가능 하다.

② 수영배우기! 교내 사우나를 통해 들어가는 수영장은 국제 수영대회의 정식 규격에 맞는 레일이 비치되어 있을 정도로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매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레벨을 나누어 수영강습도 받을 수 있으며 역시 재학생은 50% 가격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수영을 끝마치고 사우나도 즐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



다양한 문화지원 혜택

① 매달 토요일마다 운영하는 역사문화탐방 참여하기! 학교 근처 관광지나 문화유적지를 친구들과 함께 보러 갈 수 있으며 모든 식비와 교통비, 간식비는 무료이다.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신청가능하며, 연말에는 역사문화탐방 체험수기를 모집하여 우수작은 상금을 주기도 한다.

② 영화감상과 독서! 교내 5층 도서관에서는 학생증을 제출하면 무료로 도서와 영화 DVD를 대여할 수 있다. 수업이 없는 무료한 주말에는 중원 카페테리아에서 구매한 피자한 판과 신나는 영화 한 편 만 있다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다. 도서 또한 센치해진 새벽감성을 달랠 좋은 친구이다.

③ 교내 여러 행사 참여하기! 교내에는 여러 이벤트와 행사가 진행된다. 매 학기마다 외국인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이 영어팝송을 같이 부르며 준비하는 음악회에 참여해보기도 하고, 매주 영어카페에서 열리는 이벤트를 같이 즐겨도 재미있다.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마작, 보드게임, 파티를 즐기면서 친목도모는 물론 서로의 전통문화도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최예린기자 choiyerin@jwu.ac.kr

대학가면 예뻐진다

새학기 시작,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예뻐지기. 대학가면 예뻐진다는데 뭘 해야 예뻐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 보자!



Makeup [메이크업]

바쁜 아침에 메이크업을 일일이 공들여 할 수 없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눈썹과 입술일 것이다. 먼저 입술은 올해 'My Lips But Better'의 약자인 MLBB가 유행이다. 내 본래 입술색과 비슷하지만, 좀 더 예쁜 컬러를 뜻한다. 사람마다 입술색이 다르기에 각자의 MLBB도 다르다. 쌩얼인 상태에서도 어울리는 MLBB를 찾는 방법은 입술 안쪽 색과 가장 유사한 손가락 끝을 이용해 MLBB를 골라보자.

Hairdressing [헤어관리]

건강한 모발 만들기는 어떻게? 바로 이렇게! 충분히 적신 머리에서 샴푸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거품을 다 헹군 후 손으로 두피를 '스크럽'하듯 문질러준다. 이것만 잘해줘도 비싼 헤어샵에서 관리 받지 않아도 된다!

*스크럽 : 미세한 알갱이를 이용해 피부를 가볍게 문질러주는 것



Skin care [피부관리]

뾰루지가 나면 하루 종일, 사라질 때까지 계속 신경이 쓰인다. :(뾰루지는 여드름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되며 막힌 모공 안에 쌓이는 각질 그리고 피지 등에서 세균이 번식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뾰루지를 가라앉히는 방법은 손으로 만지거나 짜면 안 된다. 염증을 얼음찜질을 하고 모공을 줄이고 식염수를 통해 세균을 제거한다. 피부는 꾸준함이 비결 아닌 비결!!

Diet [다이어트]

살을 빼면 여자는 18배 예뻐진다는 사실!! 모두들 알고 있지만 맘처럼 쉽게 할 수 없는 다이어트..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알아보자!

①아침식사를 거르지 말자. ②매일 매일 견과류와 같은 걸로 간식시간을 갖는다. ③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꼭 지키자.

④식사 후 바로 양치질하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조금만 신경 쓴다면 할 수 있는 습관들이다. 조금만 신경 써서 예쁜 몸매를 유지하자!

김유민 기자 godqhr1302@jwu.ac.kr



대학의 첫 걸 음 수강신청 부터!

필자에게도 떨리는 마음으로 수강신청을 하던 1학년 시절이 있었다. 신입생에게 수강신청은 생소한 방식임과 동시에 스스로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설렘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대학생활의 첫 걸음이다. 하지만 원하는 과목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될 신입생을 위해 준비한 수강신청 방법을 소개한다!

1 우선순위를 정하라

수강신청 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강의목록을 확인 한 후 시간표를 짜보길 추천한다. 그 후 제일 듣고 싶은 과목 순으로 순위를 매겨 수강신청 시 가장 먼저 신청하도록 하자! 즉, 듣고 싶은 교양을 먼저 신청한 후에 전공을 신청하게 되면 만족스러운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찍 일어나 PC 혹은 교내 본관4층으로!

기숙사에서 수강신청 하려는 생각은 NO! 1초, 0.1초라도 빨리 접속해 '신청' 버튼을 누른 후 '신청 되었습니다' 라는 팝업창을 보고 싶다면? PC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PC방을 못 간다면 본관 4층 로비에 위치한 정보검색실을 이용하자! (모두 PC방과 4층으로 몰릴 것을 예상하고 기숙사에서 신청한다? 천잰데?)

3 초단위 시계 준비!

'한국 표준 시간 UTCk3.1' 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좋고 '네이버시계' 를 사용해도 좋다. 10시 신청시작이라면 9시 59분 59초 즈음 살포시 '딸깍' 눌러보자! 서버가 다운되어 F5(새로고침버튼)만 누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4 Chrome이 아닌 Explorer

필자는 웹서핑에 Chrome을 사용한다. 하지만 중원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은 Chrome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Explorer를 사용하여 접속하자!

5 올해의 공강

금요일 공강은 선택이아니라 필수라는 요즘! 눈여겨볼만한 소식이 있다. 올해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월요일에 있다. 즉, 화요일 공강을 하게 된다면? 길게는 5일의 휴일을 가질 수 있다! 화요일 공강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6 9시 수업을 피하라

신입생들에게 주어지는 전원 기숙사 혜택! 기숙사의 가장 큰 적은 학생을 통제하는 사감인가?! 아니다. 바로! 잠이다. 신입생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늦잠을 동반하게 만든다. "난 아침형 인간이라 상관없어"라는 학우도 부랴부랴 강의실로 뛰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부득이하게 통학자가 늘어나 강의시간을 조정했지만 아침잠이 많은 그대에게 9시 수업은 과감히 아침형 학우들에게 양보하자 ^^

7 교수를 알고 강의계획서를 알면 A^+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있듯 다양한 수업방식의 교수 또한 많이 있다. 선배든 페이스북이든 어디든 좋다. 교수의 수업방식 평가방법을 들어보고 최종결정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 두드릴 수 있는 다리라면 두드려봐야지 않겠는가? 그리고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강의계획서 또한 확인 할 수 있다. 팀플이나 보고서에 점수가 치중되어 있진 않은지? 너무 중간고사에 치중되어 있진 않은지 똑똑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자.

신입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18학점을 16주간 듣는다면 수업 한시간당 12,000원 ~ 13,000원의 수업을 듣는 것이다. 20명의 학생이 수강한다면 시간당 약 25만원씩의 대학수업이다. 부모님께서 등록금을 내주시는 학우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우든 수업 듣는 매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학업에 임하길 당부한다. 휴강이라는 문자 메시지에 '오~! 예!!!'를 외치기보다 휴강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듣고 보강 날짜를 잡을 줄 아는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임태균기자tg0610@jwu.ac.kr

설렘의 시작! 친구와 룸메이트?



신입생 A양은 고민이 많다. 중원대에 입학해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다른 학우와 함께 한 학기를 생활한다니! '성격이 안 맞으면 어쩌지?', '생활패턴이 다르면 어쩌지?' 물론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데, 이런 A양을 위해 '재학생들에게 묻는다! 친구와 함께하는 생활 어떻게 되나요?'를 준비해봤다!!



1 집을 떠나 친구와의 동거의 시작 = 설레임!

A양은 입학 전부터 카카오톡으로 친해진 동기와 같은 방을 쓰기로 한다. A양의 언니는 '기숙사 생활이 힘들지도 몰라'라고 말 했지만 A양은 마냥 괜찮을 것만 같다. 친구와는 너무나도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벌써 이 것 저 것 하자고 계획까지 짜놓은 상황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haruna85/220234724705

재학생의 말: 새내기 시절 과단톡방이 생긴 후 자주 연락하고 친해지고 입학 전 너무나도 잘 맞아 몇 번 만난 친구와 룸메이트를 결정했다. 하지만 속단은 금물! 친구로서 잘 맞는 것과 룸메이트로서 잘 맞는 것은 다르다. 뭐가 다른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라.



2 불화가 점화되는 순간, 청소

A양은 꼼꼼한 성격이다.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테이프로 손수 치워야 직성이 풀린다. 그래서 B양에게 청소분담을 제안하고 B양 역시 동의했다. A양은 역시 B양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과연 깨끗하게 지낼 수 있을까?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woori8233/40154260495

재학생의 말: 그래, 청소 분담 좋지. 계속 실천만 된다면! 하지만 누군가 한명이 자신의 의무를 하지 않는 순간, 기숙사의 방의 평화는 깨진다. 이유는 기준의 차이이다. 청소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다. 예를 들어 방바닥에 머리카락만 없어도 깨끗하다고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방바닥에 머리카락은 있어도 책상만 깨끗하면 오케이다. 따라서 B양은 청소의 필요를 못 느끼는데 A양은 청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서로 맡았던 청소 분담에 대해 소홀해지기 위한 충분조건을 갖추게 된다.



3 아침형 인간VS올빼미 족

A양은 침대 누웠다. 그리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을 만난 것 같다.' B양에게 눈치를 주려고 불도 끄고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내며 침대에 누웠는데도, 한껏 볼륨을 높여 노래를 듣는 B양이 당황스럽지만 그저 생활 방식이 다른 것이니 맞춰 가면 되니까 이해하려 한다. 사진 출처 : http://m.photo.naver.com/post/post.nhn?category=theme&themeId=ALL&postId=20090707052802310 32

재학생의 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 공부는 밤에 해야 잘 되는 사람. 자주 술에 취해 들어오는 사람. 주말엔 절대로 외출을 하지 않는 사람. 밤새 게임하는 사람 등등. 세상에는 사람 수만큼 다양한 생활 방식이 존재한다. 나와 생활 방식이 비슷한 룸메이트를 찾는 것은 애인을 만드는 것 만큼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활 방식이 맞지 않는 룸메이트와 살게 된다. 20년 이상 축적된 습관은 쉽게 절대 바뀌지 않는다.

여담 : 3인실을 사용하던 박양은 바로 옆 친구의 올빼미 생활로 싸우고 싶지 않아 참으며 매일 밤을 지새다가 결국 박양도 올빼미 생활로 바뀌었다고.

4 난 초대한 적 없는 손님의 방문

A양은 신입생 환영회를 마친 후 기숙사에 들어와 얼굴을 덮고 있던 답답한 화장을 싹 지우고, 앞머리도 말끔히 올리고, 홈웨어의 완성이라는 안경까지 착용한 후에, '이제 좀 쉬어볼까..?' 하는데 끼~익 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맙소사 B양이 처음 보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손님을? 다 데리고 나가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몹시 짜증났지만 '그래도 손님이 있으니 일단 티 내지 말아야지. 나중에 둘이 있을 때 한마디 해야겠다.' 며 반갑게 인사를 한다.

재학생의 말: 친구와 같이 살게 되면 내가 초대하지도 않은 손님을 맞아야 할 일이 많아진다. 시도 때도 없이 친구들을 데려와 시켜먹고 잘 치우지도 않고 나가는 친구의 친구들.. 실제로 재학생 K양의 룸메는 점점 더 대담해져 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왔고, 나중에는 자기 방을 두고 우리 방에 들어와 자기까지 하는 일이 잦게 발생했다고 한다.

5 기숙사 생활을 마치며

이 기사를 쓰기 위해 남녀 불문하고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다. "기숙사 생활은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것이지만, 안 맞았던 친구와 자취를 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절대 싫다"고 답했다. 심한 경우에는 절교를 하고, 아직까지 연락하고 지내더라도 묘하게 서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신입생들이 꼭 알아야할 것들은

1) 무조건 분리된 공간을 딱 정할 것. 2)같이 살기 전에 많은 대화를 나눠볼 것 3)문제가 생기면 싸울까봐 참지 말고 그때그때 이야기 할 것!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싶다. 신입생 여러분의 설리설리한 기숙사의 로망을 깨버린 것 같아 미안하지만, 잘 지낸 룸메이트가 다음 학기 기숙사 신청에 이유 없이 당신과 방을 쓰지 않겠다는 상황이 오게 하고 싶지 않다면? 참고해보아요!

김유민 기자 godqhr1302@jwu.ac.kr

내방의 품격 - 우리집에서 라면먹고 갈래?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의 그늘에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지내온 대한민국 젊은이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법한 자취의 로망! 그리고 자취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해봤을 한 마디, '라면 먹고 갈래?' 그러나 더럽고 난잡한 자취방에서 누가 라면을 먹고 갈까? 손님을 초대하려면 깔끔한 자취방의 모습으로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부터 깔끔한 자취방 만드는 팁과 우리 학교 기숙사 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소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류양무 기자 solo@jwu.ac.kr

'이것만 알면 자취방에 손님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벽면은 밝은 색상으로!

출처 - http://blog.naver.com/cmh31101/220527873500

자취방이라고 하면은 좁은 공간이기 마련, 이럴 때는 밝은 계열 색상의 벽면을 통해 공간이 최대한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흰색의 벽면으로 칠하고 곳곳에 밝은 색상으로 포인트 색상을 넣어주는 것도 좋은 인테리어 방법 중 하나이다.



두 번째, 공간 분할을 하자!

출처 - http://blog.naver.com/cmh31101/220527873500

좁은 자취방이라고 해서 꼭 원룸처럼 사용하라는 법은 없다. 취침공간과 생활공간을 구분하면 원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커튼이나 가구 등 소품을 이용하여 공간 분할을 확실히 하도록 하자. 이는 보기에도 깔끔해 보일뿐더러 잠자리와 생활공간의 구분으로 인해 저절로 당신이 좀 더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세 번째, 주요 컬러는 3가지 이하로 심플하게!

출처-http://blog.naver.com/cmh31101/220527873500, http://blog.naver.com/fmzhifu/220620690119

고급스럽고 값비싼 느낌을 주기위해 자취방을 다채로운 색깔로 꾸미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촌스러운 느낌만 주기 마련이다. 따라서 단조로운 색상으로 주요 컬러를 잡고 액자나 소품 등을 이용해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 고급스러움에 감탄을 자아낼 것이다.

네 번째, 개성 넘치는 소품들!

자신의 개성이나 관심사를 소품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다. 자신이 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한 폭의 그림을,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악기를, 운동에 관심 있다면 운동기구를, 이처럼 다양한 소품 등으로 인테리어 함으로써 자취방에 놀러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 할 수 있다. 당신의 매력에 빠져버린 이성과 자취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다 똑같은 기숙사? 아니! 다른 느낌의 기숙사'



첫 번째, 건조한 내부를 촉촉하게 '가습기'

재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기숙사 내에 공기가 굉장히 건조하다. 건조한 환경은 곧바로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신입생들이 가습기 지참을 생각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가습기를 꼭 호실 내에 구비해두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란다.

출처-http://www.wemakeprice.com/deal/adeal/198159,



두 번째, 공기청정 식물을 가꾸자

우리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면서 환기에 대한 고충을 겪은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기청정 식물을 가꿈으로써 호실 내에 화사함과 공기청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대표적인 식물로 'NASA'에서 선정한 공기청정 식물 1위와 2위에 오른 아레카야자와 관음죽을 추천한다. 보다 쾌적한 기숙사 생활을 위한다면 기억해두자.

출처-http://www.lotteflower.co.kr/shop/goods/goods_view.php?goodsno=66,



세 번째, 분리수거 휴지통을 사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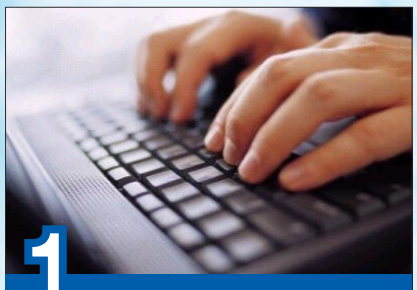
넘쳐나는 쓰레기들을 주체하지 못해 여기저기 방치해둔 경험이 한번쯤은 다들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쓰레기들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종량제 봉투에 다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분리수거 휴지통을 이용하여 바로바로 분리수거를 한다면 쓰레기가 넘칠 일도 없고, 나중에 따로 분리수거를 할 필요도 없다. 분리수거 휴지을 이용하여 호실 내에서 청결함과 편리함을 누려보자.

출처-http://noahmall.tistory.com/entry/

제10호 2016년 3월 2일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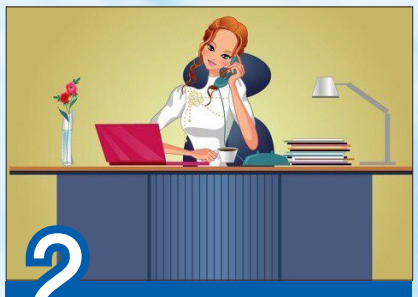
자격증 탐구 보고서

벌써 겨울방학이 다가오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처음 3월 개강할 때의 의지와 9월 개강할 때의 의지가 많이 다른 것을 본인 스스로가 많이 느낄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현재 2학년부터는 얼마 남지 않은 취업이 슬슬 걱정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준비 해봤습니다. 어디로 취업을 하던! 도움이 되는 자격증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컴퓨터 활용능력시험입니다.

컴퓨터의 전반적인 지식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무 능력을 충족하기위해 공부하기에는 이만한 자격증이 없습니다. 요즘엔 독학할 수 있도록 책도 정리가 잘 되어 나오고, 인터넷 강의도 많이 나와 있어 학원보다는 독학으로 많이들 취득한다고 합니다. 독학으로 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은 2주는 잡고 공부해야한다고 합니다. 필기시험은 컴퓨터일반, 엑셀,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세과목을 보고 합격의 기준으로 평균 60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평균을 높이기에는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실기를 독학하게 되면 엑셀의 함수부분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해 인터넷강의를 곁들여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올해의 시험일정은 지나갔지만 매년 시험일정이 비슷하다고 하니 방학동안 2주정도 열심히 공부해 취득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비서실무 자격증입니다.

비서실무라는 자격증을 처음 듣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펌이나 회계법인, 중소기업, 대기업 비서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반지식이 필요하고 전문비서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비서 실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서 자격증은 1,2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80분 동안 총 4과목을 시험 본다고 합니다. 4과목으로는 비서실무, 경영일반, 사무영어, 사무정보관리가 있습니다.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60점이상이여야 합격이라고 합니다. 실기시험으로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한글 속기 등의 자격증이 있다면 실기 면제라고 합니다. 이 자격증은 책을 따로 사지 않아도 비서 카페들만 조금 찾아보면 이론 요약 파일들을 많이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받아서 공부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 후 기출문제를 집중해서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독학으로 취득하기까지의 과정은 빠르면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일년에 딱 두 번 실행된다고 하니 시기를 잘 보고 바짝! 공부를 한다면 금방 취득할 수 있다고 하니 중원인 모두들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3 전산 회계 자격증입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요즘에는 특히 전산분야 쪽에 구인인구가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분야의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면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의 여파로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자격증이 바로 전산 회계입니다. 필기시험으로는 회계원리, 원가 회계, 세무 회계 3가지의 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실기에는 기초정보의 등록, 수정, 거래 자료의 입력, 부가가치세, 입력자료 및 재정비 조회가 포함됩니다. 합격의 기준은 70점이상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전산 회계 시험은 5/1로 낮은 합격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먼저 겁을 먹거나 불안한 감정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분개 문제나 실기에 관련된 것들을 평균적으로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독학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여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독학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빠르면 1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전산 회계를 취득한 후 전산 세무까지 취득한다면 당신은 취업 완전 확정! 곧 돌아오는 겨울방학에 공부를 하고 내년 초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취업을 함에 있어 필수적이고, 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소개였습니다. 이 자격증들 외에도 본인들이 일하고 싶은 분야, 적성을 빨리 찾아 그에 관련된 자격증들을 취득한다면 나중에 취업할 때 분명 가산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필수적인 자격증뿐 만 아니라 조금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만한 자격증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자격증

1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급수 : 초급(5~6), 중급(4~3), 상급(2~1) ◆연 시험 횟수 : 4회

직무능력평가에 대부분 들어가 있고, 공기업 혹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하는 자격증입니다.

2 MOS자격증

◆과목&구성 : Core - 엑셀, 파워포인트, 엑세스, 워드, 아웃룩 / expert - 엑셀, 워드

◆준비방향 - 파워포인트〉워드〉엑셀〉엑세스 ◆독학기간 : 한달

ITQ자격증보다 쉬운 자격증으로써! 쉽지만 자격증 칸에 하나라도 더 쓰기위해 많이들 취득한다고 합니다.

3 종이접기자격증

◆급수 : 초급, 중급, 지도자 ◆연 시험 횟수 : 4번

◆방과 후 교사, 유치원 교사 특수교육 교사 등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꼭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4 TOEIC

◆점수 : 990점 만점 ◆연 시험 횟수 : 매달 한번에서 두 번

취업에 있어 필수적인 항목. 최소 600점 이상이 되어야 이력서에 넣을 수 있음.

5 AUTOCAD

◆급수 : 1급(2급합격자 대상), 2급 ◆연 시험 횟수 : 매달 2번

◆필기시험은 문항 : 25 ◆합격 기준 : 필기 가산점+실기 200점 or 실기 점수 120 이상

건설 쪽 일을 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기본으로 취득해 두면 좋을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 칸에 쓰는 것보다는 면접을 통해 메리트를 한 층 더 업! 시킬 수 있다는 사실!

김유민기자 godqhr1302@jwu.ac.kr



취업 관문 뽀개기!!

자기소개서 & 면접 A to Z

후덥지근한 여름이 물러가고 파랗게 물든 잔디도 하나 둘 금빛으로 만들 가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이런 가을이 모두에게나 반가운 것은 아니다. 내년 졸업을 앞둔 4학년 2학기를 재학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에게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선선한 가을은 매서운 겨울보다 혹독한 것이 사실이다. '문돌이(문과생)들 취업이 그렇게 어렵다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은가? 전부 현 취업시장의 가혹함을 보여주는 양상이다. '뼈와 살이 분리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다분히 감정적인 말로 호소하는 것은 더 이상 그만두도록 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가서야 높디높은 취업의 관문을 뽀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자기소개서

취업시즌이 되면 하루에 적게는 수백 통 많게는 수만 통의 자기소개서가 인사담당자들에게 전달된다. 아무리 재밌는 게임도 하다보면 질리는 법인데 남의 인생사 듣는 것이 재미있을 리 만무하다. 그들의 눈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가독성을 키워보자. 맞춤법과 문단을 나누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이야기의 주제별로 문단을 나누는 것은 가독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요즘은 양괄식으로 결론을 소제목으로 미리 적어놓고 스토리를 이어가는 방법도 많이 애용되고 있다. 또한 정해진 분량을 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키포인트다. H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아무리 잘 쓴 자기소개서라고해도 기준을 어긴 것이므로 인사담당자의 눈 밖으로 벗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밝혔다.

▶면접

바른 복장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신뢰감을 주는 무기중 하나이다. 당신의 깍지 않은 수염, 더북한 머리, 의도를 알 수 없는 드레스코드는 당신이 무엇을 얘기하든 당신을 신뢰감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일조한다. 면접 전 날, 머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옷은 무엇을 입을지 미리미리 입어보고 정해두도록하자. 면접장에서의 태도도 중요하다. 당신의 성격이 요즘 랩퍼들처럼 당당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라고 해도 면접장에서는 아무도 '리스펙트' 해주지 않을 것이다. 절대 가볍게 보이지 말고 '저 사람은 무엇을 맡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자. 진지한 눈, 꽉 편 어깨, 곧추세운 허리와 평소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면 충분하다.

2. 진부한 이야기.. 더 이상 NEVER!

▶자기소개서

'엄격하신 아버지와 상냥하신 어머님...', '뼈와 살이 분리되는 노력으로...'와 같은 진부한 내용이 금기시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진부한 표현을 제외 하는 것 이상이 요구된다. 그 키포인트는 바로 '에피소드'. 자신만의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 유니크하기 때문에 타인과 겹치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문제해결능력 또한 어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바로 이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등 모든 항목에서 경험이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자기가 지원 할 직무와 연결시켜 작성한다면 이미 취업이 눈앞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꼭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면접

자기소개서에 적은 에피소드를 무기로 면접관들을 충분히 무찌를 수 있어야한다. 면접관은 당신의 인성도 중요히 여기지만, 당신이 지원 한 업무에 당신이 적절한 인재인가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면접관의 모든 질문을 당신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직무와 연결시켜 대답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 당신이 영업 부서에 지원했다고 하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사에 관심이 많아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아 붕어빵을 팔았습니다.'와 같이 당신의 에피소드와 직무를 연결시킨다면 더할 나위 없는 백점짜리 대답이 된다. 영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가? 못한다면 아쉽게도 취업의 문을 격파하기엔 조금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작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에 물건을 팔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 한 것은 '언어'. 그 중 만국공용어인 영어는 필수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면접에 영어면접을 포함시키므로 반드시 일정이상의 영어 공부를 하도록 하자.

3.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지원 회사에 대해 공부하자.

▶자기소개서

지피지기 백전백승. 너무 유명해서 일언반구 할 필요조차 없다.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요즘은 다들 일정 이상의 스펙을 가지고 있으며 나름대로 기준이상의 자기소개서도 작성한다. 하지만 그 중 자신의 회사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는 특별한 한 장을 발견했다면? 아무래도 그 지원자에게 더 관심이 갈 것이고 더 신뢰를 느낄 것이다. 대부분의 취업성공인들은 좋은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 최소 15일 정도 그 기업에 투자를 하였다고 한다. 당장 지원 회사의 홈페이지 및 매장에 찾아가 회사에 대해 공부하도록 해 성공적인 구애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면접

면접관들은 '이 사람이 단순히 취업이나 하려고 우리 회사에 지원했을까?'와 같은 마음을 항상 품고 있다. 저 의구심을 적극 반발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에 대해 공부한 지식을 뽐낼 수 있는 자리이다. 회사의 비전과 자신의 비전 및 직무를 일치시켜서 설명해라. 그리고 회사에 대해 공부하면서 알게 된 점을 '제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점이 살짝 아쉬웠는데 이러한 점은 이러한 방향으로 보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와 같은 적극성을 곁들여 면접을 본다면 금상첨화. 그 회사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줄줄 꿰고 있어야한다.

위의 내용들을 차치하고도 성공적인 취업 방법으로 '중복되는 말을 피해라, 단점은 극복하는 과정일 뿐이라 포장해라'와 같은 수많은 팁이 있다. 하지만 전략은 전략일 뿐! 핵심적인 전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절실함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취업을 위한 간절한 가면보다는 자신의 꿈을 왜 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지 진솔하고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성적에 맞춰 대학에 입학했을 때의 후회를 다시 되풀이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정명준기자
jenkins@jwu.ac.kr

제10호 2016년 3월 2일 수요일





국내여행, 어디까지 가봤니?

고속버스, 지하철, 기차 등 교통편이 잘 되어 있는 요즘, 배낭여행을 떠날 마음만 있다면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특히 만 25세 이하라면 누구든지 새마을, 무궁화 열차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 티켓이 흥행하면서 더 이상 멀어서 못 간다는 변명은 게으름으로 치부될 뿐이다. 배낭여행객이라면 으레 꼭 한번쯤은 들린다는 성지순례 탑 4 여행지가 있다. 여행이라고 부담 가질 필요도 없다. 우리에겐 젊은이들만의 특권인 '빈티지'한 멋이 있지 않은가. 다가오는 겨울방학 때 페이스북에 남들이 올린 알콩달콩한 여행사진만 보고 부러워말고, 이번기회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치들을 직접 내 눈과 마음에 한껏 담아보자.



1.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 여름에는 푸르게, 가을에는 운치있게

- 언제 사진을 찍어도 화보처럼 나오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은 너무나도 유명한 여행지이다. 처음 생태공원에 들어서면 드넓은 갈대밭이 끝이 안보일 정도로 펼쳐 있는 장관을 볼 수 있다. 순천만 입구부터 갈대밭의 전체 풍광까지 조망할 수 있는 용상전망대까지 구불구불 이어진 오솔길은 화보 찍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포토존'이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속삭이듯이 가을색으로 물든 갈대밭의 향연은 발빠른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잠시 잡아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해준다. 새털구름 몇 점 동동 띄운 푸르른 하늘아래 내 키를 훌쩍 넘는 갈대밭에 숨어 숨박꼭질을 할 때면 어린아이가 된 것 마냥 한참 해맑은 웃음을 띄며 순간을 만끽하기 바쁘다. 그만큼 자연의 매력을 갖춘 곳이 바로 이 순천만이다. 이미 수차례 드라마 촬영지로 사용 될 정도로 그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워 너도나도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포즈를 잡기 바쁘다. 또한 순천만은 자연환경이 깨끗하게 보존된 청정지역으로 유명하다. 철마다 각종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운이 좋다면 가끔 저녁석양을 등지고 분주히 날아가는 철세떼를 목격할 수 있다. 순천만을 걸어 다니며 둘러 보는 것도 좋지만 기회가 된다면 배를 타고 순천만 갈대밭을 구경하는 것도 추천한다. 배를 타고 돌아보면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무성한 갈대밭의 구성을 구경할 수 있고, 깍아지르는 듯 솟은 암벽들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순천만 관광의 숨은 재미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 전주 한옥마을 – 자칭 '먹방'의 본고장, 그 곳은 바로 전주!

- 맛있는 음식, 거하게 차려진 상차림을 후다닥 비울 수 있다고 자부하는 자칭 대식가들의 성지순례인 이 곳, 국내여행에서 단연 빼놓을 수 없는 여행지로 유명한 이 곳은 바로 전주 한옥마을이다. 정이 많은 전라도의 특성상 전주에서는 일단 어떤 음식을 시키든 테이블이 꽉 차게 밑반찬이 준비된다. 나물, 전, 각종 김치 등 '백반을 내가 시켰나?' 라고 착각할 정도로 각각의 밑반찬들이 저마다의 색과 고유의 맛을 뽐내기 바쁘다. 밥 한 술 크게 떠서 반찬 한 점 올려 먹으면 입안을 가득 채우는 향긋한 나물향에 문득 어머니의 손맛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리고 동그랗게 잘 빚은 육전위에 쑥으로 장식을 톡 얹은 동그랑땡을 한입 베어 물고, 노릇노릇 잘 구워진 짭조름한 간고등어 한 점을 흰 밥에 척하니 올려 먹다보면 어느새 반찬만으로 밥 한 공기를 뚝딱 다 비우게 된다. 이렇게 푸짐하게 한 상 차려주는 전주의 미덕은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 한국인 여행객들마저도 충분히 놀라게 한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이 포함된 '전주시 완산구 교동' 지역은 버스정류장부터 공중전화박스까지 모두 고풍스러운 한옥지붕으로 장식하여 한국의 멋을 더욱 뽐냈다. 처마의 아름다운 곡선과 한옥으로부터 풍겨오는 향긋한 나무냄새는 친숙하면서도 세련된 우리나라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멋 중 하나이다. 한옥마을에는 1시간당 2~3만원에 예쁜 우리 전통한복을 대여해주는 곳이 많으니, 식사 후 자유롭게 한옥을 배경으로 사진 찍으며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것이다.



3. 대관령 양떼목장 – 드넓은 초원과 풍차, 한국의 알프스

- 동화 속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유럽의 알프스를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해발 800~1400m의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육우, 젖소, 타조, 양 등이 자유롭게 풀밭을 거닐며 한가롭게 풀을 뜯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는 곳, 바로 대관령 목장이다. 태백산맥의 웅장한 자태와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는 오직 고산지대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경이로운 장관을 연출한다. 매회 2~3회씩 운영되고 있는 양떼몰이 공연을 시간 맞춰 가면 좋다. 드넓은 초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양들을 한 곳으로 모는 양치기 개의 재간은 관람객들의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이다. 또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양을 가까이에서 구경하고 먹이도 주면서 색다른 체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장에는 드라마 '가을동화'의 촬영지로 유명한 나무도 있다. 양떼몰이 공연장 바로 옆 큰 나무는 많은 연인들이 함께 사진 찍으며 추억으로 남기고 있으니, 이곳에 간다면 꼭 한번쯤은 기념사진을 남기는 것도 추천한다.



4. 부산 태종대 – 에메랄드빛 바다, 소주 한 잔 그리고 삶의 여유

- 공기냄새만 맡아도 이미 부산에 다 왔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짭짤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푸근한 바다냄새가 반겨주는 마지막 추천 여행지는 바로 부산이다. 제 2의 서울이라 불릴 정도로 이미 엄청난 대도시로 발전한 부산은 자갈치시장, 돼지국밥, 해운대 등으로 유명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바다와 암벽의 조화가 장관을 이루는 태종대를 최고로 꼽고 싶다. 태종대는 해발고도 200m 이하의 구릉지역으로, 파도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기암괴석으로 된 해식절벽, 울창한 숲 그리고 출렁이는 바다가 환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명승지이다. 태종대 관광 중 전망대 끝에 간이 포장마차처럼 운영되는 음식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소주 한잔 곁들이는 별미는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다. 넘실대는 푸른 파도를 바라보며 해녀들이 직접 잡아온 신선한 산 낙지 한 점과 소주 한 잔을 곁들일 때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 하나 없을 정도로 큰 만족감을 선사한다. 또 전망대 관람을 다 하고 다시 태종대 입구로 내려갈 즈음, 출출하다면 입구 근처 바닷가에 위치한 조개구이 집을 가보는 것도 추천한다. 이곳 또한 당일 아침 일찍 잡아온 조개와 해산물로 신선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맛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을 끝마치고 이곳에서 회포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진모델 : 최예린기자, 최예린기자 choiyerin@jwu.ac.kr

서울 골목길 여행 Travel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디자인으로 범죄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나요? 저도 "에이.."이런 반응을 보였지만 염리동 소금길을 알게 된 후 믿게 되었습니다. 골목길의 첫인상은 "와..."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서 20세기로 시간이 거꾸로 흐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염리동 소금길은 2013년 이후 서울시는 '셉테드(범죄예방디자인)·를 접목하여 꾸민 곳이라고 합니다. 과거 이 일대가 소금장수들이 많이 산 곳이라 소금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산책코스로 꾸민 소금길에 있는 노란색 전봇대에 1~69번의 번호를 붙이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는 '소금지킴이집'도 6곳을 만들어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줄이며 시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었다니 생활 속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걷기 좋은 염리동 소금길! 연인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옛 추억에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브루클린(성수동)

뉴욕의 브루클린 지역처럼 젊은 디자이너와 예술가의 작업실, 독특한 콘셉트의 음식점이 있는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리우는 성수동 오래전부터 수제 구두 장인들이 모여들어 어느새 구두의 메카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허름한 거리에서 문득 마주한 벽화이지만 그 곳에서 느껴지는 예술성으로 사진을 찍는 커플&친구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또 다른 예술의 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멀지 않는 곳에 서울 숲이라는 운치 있는 풍경을 한가롭고 따스한 겨울 오후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요?





삼청동

지방에서 사는 나는 '서울'하면 딱딱하고 바쁜 도시로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삼청동 골목은 내가 아는 '서울'과는 다르게 굉장히 아기자기한 골목이였습니다. 삼청동의 카페 골목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만큼 꽤나 유명한 곳들입니다. 서울사람들은 늘 보던 일상이겠지만, 지방에 사는 이들은 이런 아기자기한 모습들이 참 예뻐보일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이률적이지 않고 모양이 작은 부분이라도 신경 쓴 모습이 보이는 이런 인테리어를 한번 배워보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 삼청동에 있는 모든 식당, 카페, 건물들이 다 예뻐보입니다. 건물 자체가 예쁜 건지 이곳에 있어서 같이 예뻐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골목을 당신은 누구와 걷고 싶은가요?

홍대 땡땡 거리

보통 홍대 거리, 홍대 골목 친숙한 밤 문화가 생각나지만 경의선 기차가 지나갈 때 내려가는 건널목 차단기의 "땡땡"소리에서 유래한 땡땡거리는 커피프린스 1호점 골목이라고도 하죠. 주점, Bar, 카페, 식당, 일반 주택 등등이 오밀 조밀 모여 있는 작은 홍대 땡땡 거리. 어디선가 본 듯한 옛날 어릴 적 보았던 것 같은 낮은 높이의 집들과 독특한 인테리어의 건물들이 시선을 끕니다. 2005년 경의선 지하철로 사람들도 뜸해지고 상권도 가라앉았다가 "땡땡 거리 마켓"이라는 아이디어로 음악인, 미술인들이 다시 모이고 입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로 활기를 갖게 된 홍대 땡땡 거리. "땡땡 거리 마켓"이 열리는 날에는 북적북적 많은 사람들도 모인다고 해요. 시간이 멈춰진 듯이 소박하고 작은 골목, 화려하지 않아 홍대 골목 중 제일 정이 가는 곳입니다.
연인과 함께 이 곳에서 술 한 잔 어떤가요?
*맛집 추천-에따지(스테이크 덮밥), 홍대 원조 통골뱅이(통골뱅이의 진수)





연남동

골목마다 작은 식당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동네입니다. 90년대 골목길을 걷는 듯 한 느낌이 드는 곳이였습니다. 좁다란 골목길을 따라 발길 따라 여기저기 산책을 하며 보니 곳곳마다 서점, 카페, 시장, 빵집 등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벽돌집도 곳곳에 있어 더 눈길이 갔습니다. 조용했던 골목길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연남동은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 복잡한 시내 한복판보다 소박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겐 더없이 좋은 곳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좁다란 골목의 느낌이 정감 있고 어렸을 추억도 새록새록 꺼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맛집 추천-Refresh5.7(샌드위치), 더다이닝랩(프랑스요리)

김유민기자 godqhr1302@jwu.ac.kr / 모델 협조 : 김유민기자, 이승진(항공서비스학과, 15)

제10호 2016년 3월 2일 수요일

Black Friday

블랙프라이데이?
나도 한번 해보자 해외직구!



해외직구를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백화점에서 사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하고 국내에선 취급하지 않는 모델의 옷, 가방, 신발 등을 살 수도 있어요. 이러한 매력에 빠지기 위해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페이팔(paypal)

페이팔은 미국내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기타 결제 수단을 등록해두고 결제 시에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에요! 페이팔을 통해 결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외직구결제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캐쉬백 사이트(cashback site)

캐쉬백 사이트에 캐쉬백 n%가 표기 된 배너를 통해 쇼핑몰에 들어가게 되면 구매 시 n%에 해당하는 돈을 적립할 수 있어요!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캐시백사이트 해외직구에 필수에요! 꼭 캐쉬백 사이트를 통해 접속해야 적립가능하단 사실 잊지마세요!



셋째. 배송대행지

해외 쇼핑몰에서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지 않아요. 설령 해주더라도 배송비가 너무 비싸서 직접구매하는 주문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죠. 이 때 필요한 것이 배송대행입니다. 배송대행지에서 일차적으로 상품을 받은 뒤에 다시 한국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이에요! 직접 배송받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하니 해외직구엔 필수!

참 쉽죠? 그런데 왜 해외직구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폭탄세일기간에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중요한 6가지의 세일기간을 정리해봤습니다.



해외직구

1. 물품을 받을 배송대행업체를 선정한다. 회원가입 후 배송대행업체 사이트에서 나만의 미국주소를 받는다. ▶2. 페이팔에 가입한다. 가입할 때 배송대행업체에서 받은 주소를 입력해주면 페이팔 가입완료. ▶3. 캐쉬백 사이트에 가입한다. ▶4. 캐쉬백 사이트를 통해 쇼핑몰에 접속한 뒤 쇼핑을 즐기자! ▶5. 상품을 페이팔로 결제하고 받을 주소는 배송대행업체에서 받은 미국주소를 입력한다. ▶6.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배송비를 결제 한다. ▶7. 구매한 상품을 수령한다.

참 쉽죠? 이 세 가지가 해외직구의 처음과 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직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따로 있죠? 네, 맞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폭탄세일기간에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중요한 6가지의 세일기간을 정리해봤습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할 팁! 세.일.기.간!

첫 번째. 2월 셋째 주에 있는 President's day은 가을/겨울 이월 상품을 주로 세일해요!
두 번째. 7월 Independence day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며 상반기 전 제품을 할인하는 기간이에요!
세 번째. 9월 Labor day 노동자의 날 일주일 전부터 9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여름시즌 마감세일을 해요!
네 번째. 11월 BLACK FRIDAY! 넷째 주 금요일 연중 최대세일로 모두들 이 시기에 지름신을 강림시킨다는 가장 유명한 날이에요!
다섯 번째. Cyber Monday는 Black Friday 다음주 월요일에 소비자들의 구매 열기가 식기 전에 팔기 위한 월요일!
여섯 번째. 12월 Cristmas sale! 추수감사절에서 크리스마스까지 진행되며 많은 할인기간의 대미를 장식하는 할인 기간!

이상 중요한 6개의 Big Sale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해외직구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페이팔, 배송대행지, 구매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해외직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거에요~! 멀게만 느껴졌던 해외직구 조금 가까워졌나요? 안전하고 똑똑한 해외직구 되길 바래요!

임태균 기자 tg0610@naver.com

카페 메뉴판 앞에서의 뻘쭘함은 이제 그만!



우리가 디지니만화동산을 보려고 이른 아침 눈을 비비며 일어나던 시절엔
'다방'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졌던 '카페'라는 장소가 현재는 전국민이 즐기는 휴식장소로 자리잡았어요! 대학생이 되면 스타벅스에 앉아서 이어폰을 귀에 꼽고 과제를 할 생각을 했겠지만 정작 카페의 메뉴판에 앞에서면 제일 위에 있는 아메리카노 혹은 커피는 쓰거나 시다라는 인식으로 에이드류나 음료를 시키는 경우가 많죠? 이때, 기본적인 커피의 종류를 알고 있다면? 고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알아볼까요?



에스프레소(Espresso)

에스프레소는 커피원두를 곱게 갈아 압축시킨 뒤 9기압의 압력으로 뜨거운 물을 빠르게 흘려보내 추출하는 커피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빠르게 내려먹는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 30ml를 1shot이라고 해요! 에스프레소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등 커피메뉴에는 다 들어갑니다. 커피를 즐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구매하는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양도 양이지만.. 매우 씁니다.



아메리카노(Americano)

추출한 에스프레소에 물을 넣으면 바로 아메리카노라는 가장 대중적이며 저렴한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아메리카노는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찾는 음료이기도해서 다양한 유래가 전해집니다.

1. 2차대전 시기 미군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기 위해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먹었다는 가설
2. 보스턴 차 사건 이후 차를 대신해서 만들어먹기 시작했다는 가설
3. 이탈리아어로 Americano는 미국이라는 America와 ~처럼이라는 no가 합쳐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했다는 가설
4. 1999년 스타벅스에서 메뉴로 정해서 이름이 굳혀졌다는 가설 등 많은 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프레소에 물을 탓지만 커피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겐 시럽을 넣어서 드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훨씬 먹기 좋을꺼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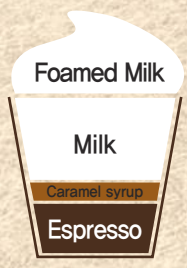
카페라떼(Caffe Latte)

추출한 에스프레소에 스팀밀크와 선택적으로 거품을 추가하면 완성되는 부드러운 카페라떼가 만들어집니다. 이탈리아어로 라떼(Latte)는 우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페라떼는 우유가 들어갈 뿐이지 달지는 않습니다. 한모금 마셔보고 이게 무슨 맛일까한다면 시럽한방울 혹은 샷을 추가해 보시길 권할께요!



카푸치노(Cappuccino)

추출한 에스프레소에 스팀밀크와 우유거품을 듬뿍 올린 후 시나몬가루를 조금 뿌려주면 시크릿가든의 길라임과 김주원의 거품키스가 떠오르는 카푸치노가 만들어집니다.
카푸치노라는 명칭은 이탈리아 카푸친 수도회의 수도사들이 착용하는 모자가 눈처럼 소복해보인다라는 뜻에서 카푸치노로 유래되었습니다. 요즘은 카푸치노에 계피가루를 빼서 마시는게 트렌드라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카페라떼와 카푸치노는 차이가 없겠죠? 카푸치노를 주문할 바에는 카페라떼를 주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라멜마끼야또(Caramel Macchiato)

카라멜시럽을 바닥에 깔고 스팀우유와 우유거품을 올려줍니다. 그 후 에스프레소를 떨어뜨려주면 거품 위에 갈색 점이 찍힌 마끼야또가 만들어집니다.
마끼야또(Macchiato)라는 단어는 이탈리어로 점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웹툰으로도 있었던 카라멜마끼야또는 왠지 들어본 기억에 한번씩 드셔보셨을텐데요. 달달한 맛에 빠져들지만 너무 달아서 다 못 먹을 수 있다는게 함정인 커피입니다.

임태균 기자 tg0610@naver.com



모먹지? 괴산에서

괴산읍

중원대

추천 | 흙돼지 양념구이
☎ 043-832-1246

다래점

숯과 소금

추천 | 삼겹살
☎ 043-833-9292

괴산 읍사무

추천 | 감자전, 도시락
☎ 043-833-4006

한양진

추억의 빈대떡

산막이시장

추천 | 삼겹살,
김치찌개
☎ 043-832-0606

추천 | 보쌈, 칼국수
☎ 043-834-9359

골목식당

GS

제일축산

밴드볼

그냥 치킨

추천 | 잔치국수
☎ 043-834-3398

삼시세끼

CU

추천 | 곱창
☎ 043-834-8089

잔치방

GS

괴산택시

안따푸꾸미

청풍면옥

추천 | 비빔냉면, 개성만두
☎ 043-834-1245

추천 | 쭈꾸미 철판
☎ 043-833-1065

괴산시외
버스터미널

삼미순대

추천 | 순대국밥(1인 7,000)
☎ 043-833-3289

즐거운날

백조식당

추천 | 장터국수정식
☎ 043-833-0211

장터국수

대사리

추천 | 묵은지 뼈찜
(1인 10,000)
☎ 043-832-1246

풍성 묵은지등갈비찜

최예나학생 작품(산업디자인학과 졸업)